

念  
佛  
冊





삼주호법위대천존상



日用誦呪經鮮說 (일용송주경해설)

一 三皈依 (삼귀의)

二 佛教의大意 (불교의대의)

三 信仰의念佛 (신앙의념불)

四 四恩不亡 (사운불망)

五 五戒受持 (오계수지)

六 六度修行 (육도수행)

七 七難消滅 (칠난소멸)

八 八苦漸滅 (팔고점멸)

九 懺悔文 (참회문)

十 十大發願文 (십대발원문)

十一 十羊經 (천수경)

十二 後念 (후념)

一

一

二

三

三

四

五

六

八

九

十一

十二

目次

十三 極樂世界十種莊嚴 (극락세계십종장엄) ..... 五三

十四 釋迦如來八相成道 (석가여래팔상성도) ..... 五五

十五 諸佛通請 (제불통청) ..... 七三

十六 四婁兜尼 (사라라니) ..... 八四

十七 真言勸供 (진언권공) ..... 八七

十八 祝願 (축원) ..... 九〇

十九 觀音施食 (관음시식) ..... 九八

二十 心經 (심경) ..... 二八

二十一 十念 (십념) ..... 一九

二十二 義湘祖師法性偈 (의상조사법성계) ..... 一一

二十三 自入山偈 至 金剛經四句偈 (자입산계 지, 금강경사구계) ..... 一三四

二十四 無常戒 (무상계) ..... 一三三

二十五 無常戒解說 (무상계해설) ..... 一三六

三六、三頂禮 (삼정례) .....

一四二

三七、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五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제이십오) (三門)  
三八、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五詳說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제이십오해설) .....

一六一

三九、讚佛歌 (찬불가) .....

一七九

四〇、聖誕慶祝歌 (성탄경축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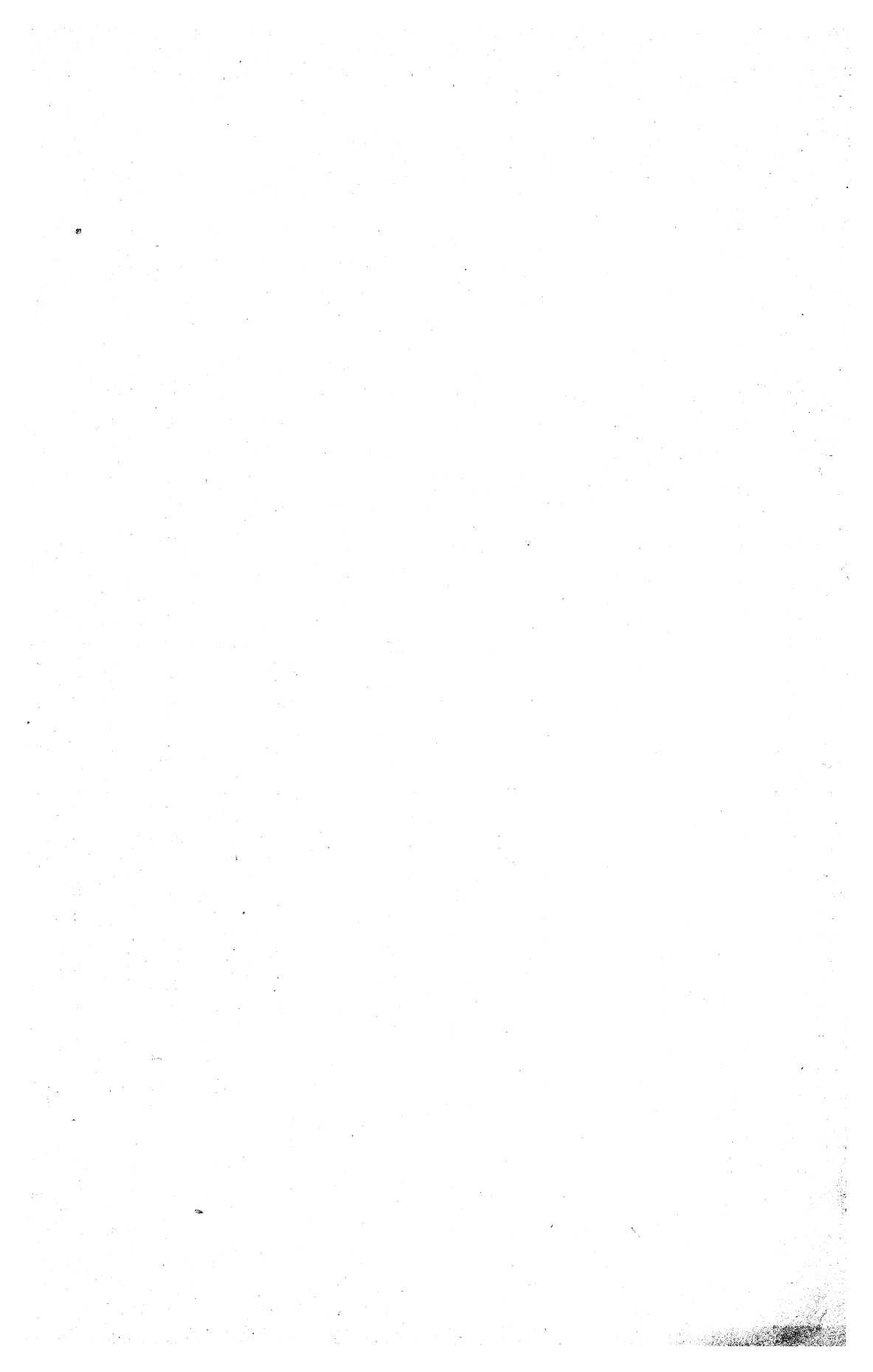
一八〇

四一、散會歌 (산회가) .....

一八二

四二、茶毗篇 (다비편) .....

一八四





一 일 삼 귀 의  
三 삼 귀 의  
故 귀 의  
依 의

故 귀 의 불 양 족 존  
依 佛 面 足 尊

故 귀 의 법 이 옥 존  
依 法 離 欲 尊

故 귀 의 승 중 중 존  
依 僧 重 衆 尊

二 불 교 의  
佛 교 의

諸 제 악 막 작  
惡 莫 作

衆 중 선 봉 행  
善 奉 行

우리 불제자는 처음에 불법승  
(삼계) 삼보에 귀의한다  
는 뜻입니다.

大 대 의  
意 의

모든 악을 짓지 말자.

모든 선을 봉행하자.

자정가의의  
自淨其意  
시제불교  
是諸佛敎

三 信 仰 念 佛

조념관세음  
朝念觀世音  
모념관세음  
暮念觀世音  
념념종심가  
念々從心起  
념불불리심  
念佛不離心

자기의 마음과 뜻을 조출케하면  
곧 이것이 불교다.

신앙염불  
佛  
우리신앙생활은 항상 염불을 잘 하십시오.

일즉 일어나 관세음보살  
잠들기전에도 관세음보살

생각생각이 마음으로조차 일어나거든  
엇지 염불할 생각을 잠지라 동잇으리요

四 사 은 불 망  
四 사 은 불 망

一 國 왕 은

二 三 보 은

三 父 모 은

四 象 생 은

五 戒 수 지

一 不 살 생

二 國 왕 은

三 三 보 은

四 父 모 은

五 象 생 은

戒 수 지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남의 은혜를  
중하게 알고 보은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왕삼보 부모 중생 이상  
사은을 보은할 나면 철저한 신앙이 될  
합니다.

살생을 하면 자비종자가 단절한다.

二 不偷盜  
이 불 두 도

三 不邪淫  
삼 불 사 음

四 不妄語  
사 불 망 어

五 不飲酒  
오 불 음 주

六 六 度  
륙 륵 도

一 布施  
일 포 시

二 持戒  
이 지 계

도적질을 하면 복덕종자가 단절한다.

사음을 하면 청성종자가 단절한다.

거짓말을 하면 진실종자가 단절한다.

술을 마시면 지혜종자가 단절한다는 뜻.

修 行  
수 행

우리는 항상 육과라밀을 수행하여야

생사의 고탈을 건너 열반 회안에

이르리라

二 이 수 一 일 화  
水 수 火 화  
難 난 難 난

六 륝 지 五 오 선 四 사 정 三 삼 인  
智 지 禪 선 精 정 忍 인  
慧 혜 定 정 進 진 辱 욕

七 칠

七 칠

難 난

消 소

滅 멸

(마음이 사사스러으면 차안이요  
마음이 청정하면 위안입니다.)

칠난을 말하면 경솔히 생각하는 사람이  
망읍니다.  
누구든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주력

삼 나찰난  
三 羅刹難

사 드장난  
四 刀杖難

오 귀난  
五 鬼難

륙 가쇄난  
六 枷鎖難

칠 원적난  
七 怨賊難

八 팔

八 팔

고

점

멸

하면 자연적 칠난이 소멸됩니다.

일 생고  
一 生苦

이 고해에 탄  
生하는 고해에 탄

이상 팔고는 우리 인생에 상

이노고 二老苦

갈수록 백발 되는 고.

삼병고 三病苦

이 몸에는 병이 많은 고.

사사고 四死苦

건고하던 몸이라도 결국 죽음에 빠지는 고.

오원증회고 五願證會苦

원수는 원수끼리만나는 고.

육애별리고 六愛別離苦

사랑이 천고 치 못하고 결국 이별

칠구부득고 七求不得苦

하느 고. 자우스럽게

원하였다기로 석가세존의 진리며 인간말고를 초월한 행복

생활의 리념이며 고집멸도의

사제를 채득한 공간실천주의

이다. 따라서 전인류각자의

생활면을 밟고여 낙하야 참된

행복을 찾게하는 최고한 철

학이며 현실적 이론이다.

팔 오 음 성 고  
八 五 陰 盛 苦

구 해도 잊지 못  
히는 고  
이 몸에 으뜸이  
성하야 항상  
악업 짓는 고

구 九  
참 懺  
회 悔  
문 文

아 석 소 조 제 악 업  
我 昔 所 造 諸 惡 業  
개 유 무 시 탐 진 치  
皆 由 無 始 貪 瞋 痴  
종 신 구 의 지 소 생  
從 身 口 意 之 所 生

전에 지은 모든 죄악은  
탐진치의 가달음으로 몸  
파 임과 뜻(삼업)으  
로 소생인즉 이제 모  
다 참회하나이다.



일체아금개참회  
一切我今皆懺悔

참회진친언

옴살바못자못지

사다야사바하

十 十 發願文  
십 십 대 발원문  
十大發願文

1. 영리삼악도  
永離三惡道

2. 속단탐진치  
速斷貪瞋痴

3. 상문불법승  
常聞佛法僧

이 주문을 만히 독성하면 전생  
에 지은바 죄업이 다 소멸합니  
다.

지옥, 아귀, 축생, 삼악도를 영이  
하자는 뜻.

탐심, 진심, 치심, 삼독을 속단하  
자는 뜻.

불법승 삼보의 법을 항상 듣자  
는 뜻.

4. 勤修戒定慧

5. 恒修諸佛學

6. 不退菩提心

7. 決定生安養

8. 速見阿彌陀

9. 分身遍塵刹

10. 廣度諸衆生

계정혜 삼학을 부끄러니 닦자는  
뜻.

우리는 모든부처님의 과거수행한바  
를 따라서 공부하자는 뜻.

보리(불각)심에 토전치않고 공부  
하자는 뜻.

결정코 안양(극낙세계) 극도에 왕  
생하자는 뜻

아미타부처님(유심정도)를 속히  
친견하자는 뜻

속성정각해서 온세계에 분신해서  
설법하자는 뜻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자는 뜻.

십일 천수경  
十一、千手經

정구업진언

△ 淨口業眞言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삼설)

△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五方内外安慰諸神眞言

나무사만다 모다남

옴 도로도로디미사

바하 (삼설)

이구분은 몸과 입과 뜻  
삼심으로 지은바 죄업을  
소멸하자는 뜻

이구문의 신력으로 오방  
에있는 모든신을 편안하  
게하는 뜻

△ 개경계  
開法藏眞  
經偈

무상심심미묘법  
無上甚深微妙法

한없이 깊고 미묘한 법문

백천만겁난조우  
百千萬劫難遭遇

백천만겁에 만나기 어렵다.

아금문견득수지  
我今聞見得受持

내가 이제 듣고 보아 받아가지니

원해어래진실의  
願解如來眞實意

원컨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옵소서.

△ 개법장진언  
開法藏眞  
言

음아라남아라다.

이 주문의 신력으로 부처님의 법장을 모든 중생에게 알려주는 것.

△ 천수천안 관자저보  
수수수안 觀自在菩薩

薩 廣 大 圓 滿 無 碍 大

悲 心 吽 哆 羅 尼 啓 請

계수관음대비주  
稽首觀音大悲咒

원력홍심상호신  
願力弘深相好身

천비장엄보호신  
千臂莊嚴普護身

천안광명편관조  
千眼光明遍觀照

이천수경은 천수와 천안을  
구족하신 관세음보살께서 대  
비심대다라니와 모든 다라니  
비밀주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계청하는 것.

관음대비주께 계주(예배)하  
나이다.

원력이 넓고 길은 상호신에

천팔의 장엄으로 넓이 두호

하시며

천논의 광명으로 두루 빛우

시며

受	수	百	백	天	천	永	영	速	속	無	무	眞	진
持	지	千	천	龍	룡	使	사	令	령	爲	위	實	실
身	신	三	삼	象	중	滅	멸	滿	만	心	심	語	어
是	시	昧	매	聖	성	除	제	足	족	內	내	中	중
光	광	頓	돈	同	동	諸	제	諸	제	起	기	宣	선
明	명	熏	훈	慈	차	罪	죄	希	히	悲	비	密	밀
懂	당	修	수	護	호	業	업	求	구	心	심	語	어

진실하신 말씀 가운데 비밀주문을 선듯 하시며  
 무위심내에 대비심을 일으키사  
 속히 바라고 구하는 것을 만족  
 하시고  
 영영히 모든 죄를 멸제하시며  
 천용과 못승현이 한가지 사랑  
 하사  
 백천삼매를 모다 한뚝 닦아가  
 저서  
 발아가 지난 이 몸은 광명의 기  
 때가 되고

수지심시신통장  
受持心是神通藏

세척진로원제해  
洗滌塵勞願濟海

초종보리방편문  
超證菩提方便門

아금칭송서키의  
我今稱誦誓啟依

소원종심실원만  
所願從心實圓滿

남무대비관세음  
南無大悲觀世音

받아가지난 마음은 신통의 고  
방이 되어

번뇌를 시쳐버리고 그해를 건  
느게 하소서

보리의 방편문 속히 딱아 증  
하야지이다

내 이제 칭송하야 맹서코 판  
세음보살께 귀의하오니

원한바를 따라 원만히 성취케  
하소서

대비파세음께 돌아가 의지하겠  
아오니

南	南	願	願	願	願	南	南
無	無	我	我	我	我	無	無
大	大	速	速	速	速	大	大
悲	悲	度	度	度	度	悲	悲
觀	觀	一	一	一	一	觀	觀
世	世	切	切	切	切	世	世
音	音	象	象	象	象	音	音

원컨대 속히 일체법을 알게  
 하옵소서

원컨대 일즉히 지혜안을 얻게  
 하옵소서

원컨대 속히 일체중생을 제도  
 케 하옵소서



원아조득선방편  
 願我早得善方便  
 나무대비관세음  
 南無大悲觀世音  
 원아속승반고선  
 願我速乘般苦船  
 나무대비관세음  
 南無大悲觀世音  
 원아조득월고해  
 願我早得越苦悔  
 나무대비관세음  
 南無大悲觀世音

원컨대 일즉히 선방편을 얻게  
 하옵소서

원컨대 속히 지혜배를 오르게  
 하옵소서

원컨대 일즉히 저 고탈을 건  
 게 하옵소서

원아속득계족도  
 願我速得戒足道  
 나무대비파세음  
 南無大悲觀世音  
 원아속회무위사  
 願我速會無爲舍  
 나무대비파세음  
 南無大悲觀世音

원컨댄 속히 계족도를 일게하옵  
 소서

원컨댄 일즉히 원적산에 오르계  
 하옵소서

원컨댄 속히 무위사를 알게하옵  
 소서

我	아	火	화	我	아	刀	도	我	아	願	원
若	야	湯	탕	若	야	山	산	若	야	我	아
向	향	自	자	向	향	自	자	向	향	早	조
地	지	消	소	火	화	推	추	刀	도	同	동
獄	옥	滅	멸	湯	탕	折	절	山	산	法	법
										性	성
										身	신

원컨대	일찍히	법성신과	동등케
하옵소서			
내가	만일	도산을	행하거든
도산이	스사로	무너지며	
내가	화탕을	행하거든	
화탕이	스사로	소멸하여지며	
내가	지옥을	행하거든	

地獄自枯渴

我若向餓鬼

餓鬼自飽滿

我若向修羅

惡心自調伏

我若向畜生

지옥이 스스로 교갈이 되며

내가 아귀를 행하거든

아귀가 스스로 배가 부르며

내가 수라를 행하거든

악한마음이 스스로 조복되며

내가 축생을 행하거든

자득머지혜  
自得大智慧

나 무관세음보살마하살  
南無觀世音菩薩摩訶薩

나 무대세지보살마하살  
南無大勢至菩薩摩訶薩

나 무천수보살마하살  
南無千手菩薩摩訶薩

나 무의륜보살마하살  
南無如意輪菩薩摩訶薩

나 무대륜보살마하살  
南無大輪菩薩摩訶薩

모든 축성들이 큰 지혜를

얻게 하여 지이다.

南無(나무)는 귀의라 합니다

다음 명호는 각보살명호입니다.

다.

나 무 관 자 재 보 살 마 하 살  
南 無 觀 自 在 菩 薩 摩 訶 薩

나 무 정 취 보 살 마 하 살  
南 無 正 趣 菩 薩 摩 訶 薩

나 무 만 월 보 살 마 하 살  
南 無 滿 月 菩 薩 摩 訶 薩

나 무 수 월 보 살 마 하 살  
南 無 水 月 菩 薩 摩 訶 薩

나 무 근 다 리 보 살 마 하 살  
南 無 重 荼 利 菩 薩 摩 訶 薩

나 무 십 일 면 보 살 마 하 살  
南 無 十 一 面 菩 薩 摩 訶 薩

南無諸大菩薩摩訶薩  
南無本師阿彌陀佛 (심설)

△ 신묘장구대다라니  
神妙章句大耋羅尼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 뜻은 관세음보살본신이시니  
대비심으로 소리를 나즉히 하야  
독송하와.

나 막 알 약。

바로 기 데。 새 바 라 약。

모 지 디 사 다。 바 약。

마 하。 사 다 바 약

마 하 가 로 니 가 약。

이 뜻은 여의륜보살 본신하시니  
성심 성의하라。

이 뜻은 관세음보살이 발우(바  
리대)를 가지신 몸이시다。

이 뜻은 불공여래와 라썬보이하  
날 병정을 거느린양

이 뜻은 보살종자가 주문 외우  
는 본신이라。

이 뜻은 마명보살이 발절나라인  
을 잡으신양。



음.

살바바 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

명.

나막. 까리다바. 이맘

알야.

이 뜻은 열체 귀신이 합장하고 꾸  
리얏어 법문 뜻은 양.

이 뜻은 사대 천왕의 본신으로 마  
구니를 항복 받은 다.

이 뜻은 사천왕의 부락 귀신 이름  
이니 동방 예견 달바대종과

성방 예통왕대종과  
북방 예야차대종과  
남방 예구반다대종이다.

이 뜻은 통수보살 본신이니 크계  
마음을 가다듬어 정성껏 위우라.

바르기에. 새바다. 다  
바. 니와칸타.

나막 하러나야.

마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슈반

이 뜻은 본사로 사나불이시니  
광대원만불가사의 공덕을 갖으  
신 것이다.

이 뜻은 청정법신, 원만보살, 로  
사나불본신이시니 크게 정성껏  
외우라.

이 뜻은 양두신왕과 보살이 모  
든 천마권속을 거느신양.

이 뜻은 감료보살과 미판세음보  
살의 권속부락이니 원통증임보

아예 염.

살바. 보다 남.

바바 말아. 미슈 다 김  
다 나 타.

타산 보타산 모든 선재동자라.

이 뜻은 비등야 차천왕이 사방에  
순행하야 올코 그릇된 것을 살  
피다.

이 뜻은 바가제신왕이 그 형상이  
검고 장대하며 손에 철차를  
잡았다.

이 뜻은 군다니보살보신이니  
천륜과 과색을 가지사고 눈이  
섰시니라.

옴. 아로계.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라테.

혜혜하례.

마하. 모지. 사다바.

이 뜻은 대범천왕의 본신이

시니 신선부라이라 (신선부

락은 삼범천중이니라)

이 뜻은 제신왕이시다.

(제신왕은 몸색이 검고 구척

장군이다)

이 뜻은 삼삼삼체예마혜수라

천신이신대 하늘병정을 거느

렸다.

이 뜻은 향적여래가 오방귀병  
을 거느렸다.

사마라. 사마라. 하리  
 나야.  
 구로. 구로. 갈마. 사  
 다야.  
 도로. 도로. 미연테.  
 마하. 미연테. 다라.  
 다라.

이 뜻은 보살이 상라벌을 주  
 신는 뜻이다.  
 이 뜻은 공신보살이 천대장군  
 이 십만억이나 되는 천병을  
 거느렸다.  
 이 뜻은 엄존보살이 공작왕  
 만병을 거느리고  
 이 뜻은 관세음대장부몸이시고  
 엄존보살이 공작왕 만병을  
 거느리고.

다  
린。

나  
레。  
새  
바  
리。

자  
라。  
자  
라。

마  
라。  
미  
마  
라。  
아  
마  
라

몰  
테。

이  
뜻  
은  
사  
자  
왕  
병  
이  
독  
송  
을  
살  
피  
고。

이  
뜻  
은  
벽  
역  
보  
살  
이  
모  
든  
마  
군  
권  
속  
을  
항  
복  
받  
고。

최  
대  
보  
살  
본  
신  
이  
니  
손  
에  
금  
류  
를  
잡  
고

대  
항  
마  
금  
강  
본  
신  
이  
니  
손  
에  
금  
류  
를  
잡  
고

모  
든  
부  
처  
님  
께  
서  
합  
장  
하  
시  
고  
천  
수  
천  
안  
과  
자  
재  
보  
살  
신  
모  
장  
구  
를  
드  
르

예혜혜로계새바라。

라아。 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 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마라호로

하례。

신다。

이뜻은 마혜수라 천왕이시다。

이뜻은 판세음보살께옵서 손에

공전(화살)과 방패를 가지시고

이뜻은 아미타불과 판세음보살의

본신이시다。

팔부신왕등중이다。

바나마. 나바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다. 못다.

모다야. 모다야.

이 뜻은 오탁악제이다.

(오탁은 ~~견탁~~ 견탁, 번노탁

중생탁, 명탁)

판세음보살깨옵서 일체중생을

리롭게하시교

이 뜻은 모든 제불수의 나무닙

이 떠러지는 소리라

이 뜻은 판세음보살깨옵서 중생

과 인연을 맺으시교

이 뜻은 아란조자가 손에 점인



매 다 리 야 。 니 라 간 다 .

가 마 사 날 사 남 .

바 라 . 하 라 나 야 . 마 낙 .

사 바 하 . 싯 다 야 .

을 쥐고

이 뜻은 대고보살이 금도를 잡고  
고 마군을 항복받고 용수보살  
이 금도로 악물 멸한다 .

이 뜻은 보당보살이 손에 철차  
를 쥐시고

이 뜻은 보금강보살이 손에 발  
절 나저를 쥐시고

이 뜻은 일체법문을 통달 하오

사바하. 마하. 싯다야.

사바하. 싯다유예.

새바라야.

사바하. 니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목카

이 뜻은 보광보살이 손에 적  
당을 쥐시고.

제천보살이 모든 손으로 금  
도를 잡으시고.

이 뜻은 석여안식국이란 이나  
라의 향이다.

이 뜻은 산해혜자재왕보살의  
본신이니 손으로 금점을  
잡으시고.

이 뜻은 보인왕보살이 손에

식하. 목카야.

사바하. 바나마. 하파야.

사바하. 자가라. 옥다야.

사바하. 상카. 섬나네.

모다나야.

사바하. 마하라. 구타.

다라야. 사바하. 마하.

금독기를 잡교

이 뜻은 약왕보살의 본신이니  
능히 병교를 치료하지교

이 뜻은 양상보살의 본신이신  
대 모든 병액을 다스리지교

이 뜻은 옷대문과 같다.

다. 이 뜻도 저 옷머리소리와 같

사  
간  
타

나  
사  
시  
데  
다  
가  
릿  
나

이  
나  
야  
사  
바  
하  
마  
가

라  
잘  
마  
니  
바  
사  
나  
야

사  
바  
하  
나  
모  
라  
다  
나

다  
라  
야  
야  
나  
막

알  
약  
바  
로  
기  
데  
새

바  
라  
야  
사  
바  
하  
(삼  
설)

△ 사방찬  
四 方 讚

一 灑 東 方 潔 道 場  
 이 舍 東 方 得 清 涼  
 二 灑 南 方 得 清 涼  
 이 舍 南 方 得 清 涼  
 三 灑 西 方 俱 淨 土  
 삼 舍 西 方 俱 淨 土  
 四 灑 北 方 永 安 康  
 사 舍 北 方 永 安 康

汗 번 東 方 으로 水 를 뿌 려 도  
 량 을 말 게 하 며  
 남 方 에 水 를 뿌 려 청 정 함 을  
 얻 게 하 며  
 서 방 으 로 水 를 뿌 려 정 도 를  
 갖 으 며  
 북 방 에 水 를 뿌 려 평 안 을  
 바 람 니 다 .

△ 도  
場 備  
場 備

도 道 場 淸 淨 無 瑕 穢

삼 보 천 룡 강 차 지  
三 寶 天 龍 降 此 地

아 금 지 송 모 진 언  
我 今 持 誦 妙 眞 言

원 사 자 비 밀 가 호  
願 賜 慈 密 加 護

도 道 場 의 淸 淨 하 야 하 례 (드려 움)

이 없 아 오 니

불 법 승 삼 보 와 천 룡 (선 신) 제 움  
서 강 림 하 움 소 서

불 자 가 관 세 음 보 살 의 묘 한 주  
문 을 지 송 하 오 니

대 자 대 비 로 부 처 님 의 밀 가 호 를  
주 시 움 소 서

△ 懺 悔 偈  
懺 참  
悔 회  
偈 계

我昔所造諸惡業

하식소조제악업

皆由無始貪瞋痴

개유무시탐진치

從身口意之所生

종신구의지소생

一切我今皆懺悔

일체아금개참회

전에 지은 모든 죄악은

탐진치의 까닭으로

몸과 입과 뜻(삼업)으로

생인즉

이제 모다 참회하나이다.

△ 懺 참  
悔 회  
眞 진

言 언

음살바 몬다 몬디  
사다야 사바하

準 제 공 덕 취  
提 功 德 聚

寂 정 심 상 송  
靜 心 常 誦

一切 諸 大 難  
一 切 諸 大 難

전생에나 금생에서 짓는 죄는  
다 소멸한다.

준제보살의 공덕을

고요히 항상 외우며

세상에 있는 모든 재란이



무 능 침 시 인  
無 能 侵 是 人

천 상 급 인 간  
天 上 及 人 間

수 복 여 불 등  
受 福 與 佛 等

우 차 여 의 주  
遇 此 如 意 珠

정 호 무 등 등  
定 護 無 等 々

모든 사람에게 침 농 지 못하고

천상과 인간에서

수복하기가 부처님과 같고

나 뜻대로 올우는 여의주를 만나

결정코 무등등한 삼보리를 얻으리라.

南無七俱低佛母 大準

提菩薩 (삼설)

△ 淨 法 界 眞 言

음 남 (삼설)

△ 護 身 眞 言

음 치 림 (삼설)

眞 言

이곳은 일염으로 이주문을 독  
송하면 법계가 청정하여진다.

이주문을 일염으로 지송하면  
우리의몸의 호신이 되는것.

△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육자대명왕 진언  
觀世音菩薩 本心微妙六字大明王 眞言

음마니 반메 흠

△ 準 提 眞 言  
준 제 진 언

나모 사다남 삼막삼  
못다 구치남 다야타

이진언을 지송하면 모든 악한  
문이 닳치고 좋은 길상문을  
성취하여 무량한 지혜와 신통  
과 변재로 지방국토에 인연파  
라 중생을 제도하는것.

이 주문을 일심으로 지송하면  
재가 출가를 물론하고 공덕이

음 자례주례준제 사

바하 부림 (삼설)

아금지송대준제  
我今持誦大準提

즉발보리광대원  
即發菩提廣大願

원아정혜속원명  
願我定慧速圓明

원아공덕개성취  
願我功德皆成就

라  
한량없으며 큰 지혜를 얻으리

내가 준제진언을 외우고

보리와 광대원을 발하나이다.

정파혜가 원명하여지길 위하며

모든 공덕을 성취하길 원하나

이다.

원아승복편창엄  
願我勝福遍莊嚴

원공중성성불도  
願共衆生成佛道

△ 여래십대발원문  
如來十大發願文

원아영리삼악도  
願我永離三惡道

원아속단탐진치  
願我速斷貪嗔痴

복득으로 장엄하길 원하며

중생과같이 성불도 합시다.

상에선 십대발원문을 역하였  
기에 약하나이다.

원 아 상 문 불 법 승  
願 我 常 聞 佛 法 僧

원 아 근 수 계 정 혜  
願 我 勤 修 戒 定 慧

원 아 항 수 제 불 학  
願 我 恒 隨 諸 佛 學

원 아 불 퇴 보 리 심  
願 我 不 退 菩 提 心

원 아 결 정 생 안 양  
願 我 決 定 生 安 養

원아속견아미타  
願我速見阿彌陀

원아분신변진찰  
願我分身遍塵刹

원아광도제중생  
願我廣度諸衆生

△ 사홍서원  
四弘誓願

중생무변서원도  
衆生無遍誓願度

중생은 무변하나 맹서코 제도  
하길 원하며

번뇌 무진서원 단  
煩惱 無盡 誓願 斷

법문 무량서원 학  
法門 無量 誓願 學

불도 무상서원 성  
佛道 無上 誓願 成

△ 자성  
自性 誓願

자성 중생서원 도  
自性 衆生 誓願 度

번뇌는 무진하나 맹서코 끈질  
원하며

법문은 무량하나 맹서코 배후  
길 원하며

불도는 무상하나 맹서코 성취  
하길 원합니다

자성의 중생을 맹서코 제도하  
길 원하며



자성번뇌서원단  
自性煩惱誓願斷

자성법문서원학  
自性法門誓願學

자성불도서원성  
自性佛道誓願成

원이발원이기명예삼보  
願已發願已啟命禮三寶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천수는  
끝이요 다음은 간단히 열불

후송을 기록하고자합니다.

자성번뇌로 끈길 원하며

자성법문을 배우길 원하며

자성불도를 결정코 이루길 원

하나이다

십이 후 념  
十二、後 念

나 무상 주십방불  
南無常住十方佛

나 무상 주십방법  
南無常住十方方法

나 무상 주십방승 (삼설)  
南無常住十方僧

원하진생무별념  
願我盡生無別念

시방세계상주하신 모든 부처님  
께 귀의하오며

시방세계상주하신 법보에게 귀  
의하오며

시방세계상주하신 승보에게 귀  
의하옵니다.

원컨대 나의 생명이 다하도록  
다른생각은 없고

아미타불독상수  
阿彌陀佛獨相隨

심심상계 옥호광  
心心常係玉毫光

염염불리금색상  
念念不離金色相

아집염주법계관  
我執念珠法界觀

허공위승무불관  
虛空爲繩無不貫

아미타불만 홀로서도 파음으로  
다.

마음마음은 항상 옥호광명에  
매여있고

생각생각은 아미타불의 금색상  
을 여이지 양이함이로다.

내가 염주를 잡아 법계를 관  
찰하니

허공으로 노끈되어 관찰치않음  
이 없도다.

평등사나 무하처  
平等舍那無何處

관구서방아미타  
觀求西方阿彌陀

나 무서방대교주 무량수  
南無西方大教主無量壽

여래불  
如來佛

나 무아미타불  
南無阿彌陀佛

평등하신 사나 부처님이 어느  
곳에 없으리요 만은

서방의 아미타불을 관구함이  
로다.

서방정도에 대교주이신 무량수  
여래불계 귀의하나다

고성으로 염불을 모시되 시간  
여유를 따라 수천만독을 모시  
어야 합니다.

십삼 극 낙 세계 십 종 장엄  
十三 極 樂 世 界 十 種 莊 嚴

법장서원수인장엄  
法藏誓願修因莊嚴

사십팔원력장엄  
四十八願力莊嚴

미타명호수광장엄  
彌陀名号壽光莊嚴

삼미사관보상장엄  
三大士觀寶像莊嚴

법장수님이 사십팔 서원으로  
인을 닦아 장엄한것

사십팔원 원력으로 장엄한것

아미타불의 명호와 수명과 광  
명으로 장엄한것

아미타불 관음세지 삼대사의  
보상을 관하여 장엄한것

彌陀國土安樂莊嚴

보하청정덕수장엄  
寶河清淨德水莊嚴

보전여의누각장엄  
寶殿如意樓閣莊嚴

주야장원시분장엄  
晝夜長遠時分莊嚴

이십사탁정토장엄  
二十四樂淨土莊嚴

아미타불 극낙국토는 안락으로  
장엄된것.

보배물이 청정하야 팔공덕수로  
장엄된것.

보배공전은 여의주로된 누각으  
로 장엄한것.

낮과 밤이 장원한 시간으로  
장엄된것.

수물네가지 낙인으로 장엄된것

삼십종의공덕장엄  
三十種益功德莊嚴

삼십가지 이익공덕으로 장엄한  
것.

십사 석가여래팔상성도  
十四釋迦如來八相成道

도솔래의상  
兜率來儀相

도솔천궁으로부터 사바세계에  
내의하신상

비남강생상  
毘南江生相

비남에서 탄생하신상

사문유관상  
四門遊觀相

사문에서 생노병사를 보신상

유성출가상  
踰性出家相

설산수도상  
雪山修道相

수하항마상  
樹下降魔相

녹원전법상  
鹿苑轉法相

쌍림열반상  
雙林涅槃相

자야반에 (밤중자시) 성을 넘어  
서 출가하신상

설산에서 육년간 수도하신상

보리수아래서 마군을 항복 받  
으신상

녹야원에서 법륜을 전하신상

쌍림에서 열반에 드신상



십오 오종대은명심불망  
十五、五種大恩銘心不忘

各安其所國王之恩

生養劬勞父母之恩

流通正法師長之恩

四事供養檀越之恩

각각그처소에 편안히 있게하심  
은 국왕의 은혜

넣고 기를제 구로하심은 부모  
의 은혜

바른 법을 유통케하심은 스승  
의 은혜

사사공양(의복·음식·침구·탕  
약)은 단월(시주집)의 은혜

탁마상성붕우지은  
琢磨相成朋友之恩

아미타불재하방  
阿彌陀佛在何方

착득심두절막망  
着得心頭切莫忘

염도염궁무염처  
念到念窮無念處

륙문상방자금광  
六門常放紫金光

서로 도아 덕을 얻으게함은

붕우의 은혜

아미타불이 어느곳에 있는고

심두에 책득하야 간절히 잊지

말지어다.

생각이 염공하야 무념처 이르

면

륙문에 항상 자금강을 놓나니

라.

삼계유여금정륜  
三界猶如及井輪

백천만점역미진  
百千萬劫歷微塵

차신불향금생도  
此身不向今生度

경대하생도차신  
更待何生度此身

천상천하무여불  
天上天下無如佛

삼계는 (육계 · 생계 · 무색계)

우물에 드러박줄과 같은지라

백천만점에 미진을 지내이로다.

이몸을 금생에 제도치못하면

다시 오는 생을 기다려 이몸

을 제도하리요.

천상천하에 부처님과 같은이

없고.

十方世界亦無比

世間所有我盡見

一切無有如佛者

剎心念可數知

大海中水可飲盡

十方 세계에 또한 비할 사람 없  
도다

세 간에 있는 바를 내가 다 보  
아도

온 세계에 부처님과 같은 사람  
없도다

의 끝 같은 마음도 헤일 수 있  
고

큰 바다 물을 단숨에 드러다  
마시며

허공 가량 풍 가 제  
虛空可量風可繫

무능진설 불공덕  
無能盡說佛功德

보화비진로망연  
報化非眞了妄緣

법신 청정 광무변  
法身清淨廣無邊

천강유수천강월  
千江有水千江月

허공을 자질하교 바람잡는 재  
간인들

부처님의 공덕이야 었지 다  
하오리

보신과 화신은 진신이 아니라  
망명된 인연을 으달 하였도다

법신이 청정하야 넓고 무변함  
이로다

천강의 물이 았으며 천강달  
이오

萬里無雲萬里天

願共法界諸衆生

同入彌陀大願海

盡未來際度衆生

自他一時成佛度

만리에 구름이 없으며 만리에 하늘이 없다.

원컨대 법계 모든 중생과 한 가지로

동일하게 미타대원해에 드러잡시다.

미래제가 다하도록 중생을 제 도하야

가타가 일시에 불도를 이르러 지이다.

남무서방정토극낙세계 삼십륙만억 일십일  
南無西方淨土極樂世界 三十六萬億 一十一

만구천오백동명동호대자대비아미타불  
萬九千五百同名同號 大慈大悲 阿彌陀佛

나무서방정토극낙세계불신장광상호무  
南無西方淨土極樂世界 佛身長廣 相好無

변금색광명변조법계사십팔원도탈중생  
邊金色光明 遍照法界四十八願 度脫衆生

불가설불가설전불가설항하사불찰미진수  
不可說不可說轉 不可說恆河沙 佛刹微塵數

도마죽외 무한극수 삼백륙십만억 일십일만  
檜麻竹蓋 無限極數 三百六十萬億 一十一萬

구천오백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등도사 금  
九千五百 同名同號 大慈大悲 我等道師 金

색여래 아미타불  
色如來 阿彌陀佛

나 무문수보살  
南無文殊菩薩

나 무보현보살  
南無普賢菩薩



南 無 觀 世 音 菩 薩  
나 무 관 세 음 보 살

南 無 大 勢 至 菩 薩  
나 무 대 세 지 보 살

南 無 金 剛 藏 菩 薩  
나 무 금 강 장 보 살

南 無 除 除 碍 菩 薩  
나 무 처 제 애 보 살

南 無 彌 勒 菩 薩  
나 무 미 륵 보 살

나 무 일 체 청 정 대 해 중 보살 마 하 살  
南 無 一 切 清 淨 大 海 衆 菩 薩 摩 訶 薩

원 공 법 계 제 중 생  
願 共 法 界 諸 衆 生

동 입 미 타 대 원 해  
同 入 彌 陀 大 願 海

십 방 삼 세 불  
十 方 三 世 佛

아 미 타 제 일  
阿 彌 陀 弟 一

십방삼세 모든 부처님의

아미타불이 제일이며

구품도 중생  
九品度衆生

의덕무궁극  
威德無窮極

아금대귀의  
我今大歸依

참회삼업죄  
懺悔三業罪

범유제복선  
凡有諸福善

구품련화대로 모든 중생을 제  
도하시며

위덕이 다하고 다함이 없으리  
로다.

내가 이제 바로 귀의하야

삼업(신구의)에 지은바 죄를  
참회하나이다.

세상에있는 모든 복과 선을

지심용회향  
至心用回向

원동염불인  
願同念佛人

진생극락국  
盡生極樂國

견불료생사  
見佛了生死

여불도일체  
如佛度一切

치극한 마음으로 회향합니다.

원컨댄 염불하는 사람들은

다 극락국토에 탄생하야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생사를

료달해서

부처님과 같이 일체를 제도하여

지이다

원 아 임 욕 명 종 시  
願 我 臨 欲 命 終 時

진 제 일 체 제 장 해  
盡 除 一 切 諸 障 碍

면 견 피 불 아 미 타  
面 見 彼 佛 阿 彌 陀

즉 득 왕 생 안 낙 찰  
卽 得 往 生 安 樂 刹

원 이 차 공 덕  
願 以 此 功 德

원컨대 내가 목숨을 마치고저  
할 때를 다 달나서

일체 모든 장애를 다 제하고

저 부처님 아미타불을 면견해

곧 안락세계에 왕생함을 얻어

지이다.

원컨대 이功德으로 써

보급어일체  
普及於一切

아등여중생  
我等與衆生

당생극락국  
當生極樂國

동견무량수  
同見無量壽

개공성불도  
皆共成佛道

일체에 보급하여서

아등과 다못 중생이

맛당히 극락국토에 나서

동일하게 무량수 부처님을 친

견해서

다 같이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원왕생원왕생  
願往生願往生

원생극락견미타  
願生極樂見彌陀

회몽마정수기별  
獲夢摩頂受記別

원왕생원왕생  
願往生願往生

원재미타회중좌  
願在彌陀會中坐

왕생하기를 원하나이다

극락세계에 왕생하야 아미타불

을 친견해서

마정수기별함을 얻어지이다

왕생하기를 원하나이다

원컨대 미타회중에 앉아서

수 집 향 화 상 공 양  
手 執 香 華 常 供 養

원 왕 생 원 왕 생  
願 往 生 願 往 生

원 생 화 장 련 화 계  
願 生 華 藏 蓮 華 界

자 타 일 시 성 불 도  
自 他 一 時 成 佛 道

손으로 향화를 잡아 항상 공  
양하여 시이다.

왕생하기를 원하나다.

원컨댄 화장련화계에 나서

자타가 일시에 불도를 이르어  
지이다



십칠 제불 동청  
諸佛通請

(自淨口業眞言至願已  
發願已歸命禮三寶次

誦)

△ 淨三業眞言

唵 娑縛娑嚩 修多薩  
婆達摩 娑縛娑嚩 修度  
咸

정수엄진언으로부터 원이발원이  
귀명에 삼보로 계속 동송함)

정삼엄진언

옴 사바바바 수다살  
바다마 사바바바 수  
도함

△ 閼 壇 真 言

唵 跋 折 羅 禰 魯 特

加 吒 耶 三 摩 耶 入 羅

吠 舍 耶 吽

△ 建 壇 真 言

唵 難 步 難 步 那 地 那

地 難 步 婆 哩 娑 婆 訶

△ 淨 法 界 真 言

羅 字 色 鮮 白 空 點 以 嚴

之 如 彼 髻 明 珠 置 之

於 頂 上 真 言 同 法 界

게 단 진 언

음 바 아 라 와 로 다

가 다 야 삼 마 야 바 라

베 사 야 흙

견 단 진 언

음 난 다 난 다 나 지 나

지 난 다 바 리 사 바 하

정 법 계 진 언

나 자 색 선 백 공 심 이 엄

지 여 희 계 명 주 치 지

어 정 상 진 언 동 법 계

無量衆罪除

一切觸穢處當加此字門

南無三滿多 沒多喃覽

△ 擧 佛

南無佛陀部衆光臨法會

南無達摩部衆光臨法會

南無僧伽部衆光臨法會

△ 普 召 請 眞 言

南 謨 步 々 誦 哩 加 哩

무량중죄제

일체족예치당가차자문

나무삼만다 못다남남

거 불

나무불타부중광림법회

나무달마부중광림법회

나무승가부중광림법회

보 소 청 진 언

나 모 보 보 제 리 가 리

多哩 多陀 揭多野

△ 由 致

仰惟 三寶大聖者 從

眞淨界 興 大悲雲

非身現身 布 身雲於

三千世界 無法說法灑

法雨於八萬塵勞 開

種々方便之門 道茫

茫沙界之衆 有求皆遂

다 리 다 타 아 다 야

유 치

앙 유 삼 보 대 성 자 종

진 정 계 흥 대 비 운

비 신 현 신 포 신 운 어

삼 천 세 계 무 법 설 법 소

범 우 어 팔 만 진 로 개

종 종 방 편 지 문 도 망

망 사 계 지 중 유 구 개 수

如 空谷之傳聲 無

願不從 若 澄潭之印

月 是以 娑婆世界

云云 (祝願)

以 今月今日 虔設法

蓮 淨饌供養 帝網重

重 無盡三寶慈尊 薰

勤作法 仰祈妙拔者右

伏以 燕 茗香以禮請

여 공곡지전성 무

원부종 8 약 징담지인

월 시이 사바세계

운은 (축원)

이 금월금일 건설법

련 정찬공양 제망중

중 무진삼보자존 훈

근작법 앙기묘원자우

복이 설 명향이례청

道者	病苦	衆生	慈悲	南無	一心	慈鑑	雖微	呈玉粒而修齊
示其正路	爲作良醫	以爲資糧	而爲體故	一心奉請	先陳三請	曲照微誠	虔誠可愍	齊體
於	於失	於諸	救護	以大		謹秉	冀回	

도자	병고	중생	자비	나무	일심	자감	수미	정옥입이수제
시기정로	위작양의	이위자량	이위체고	일심봉청	선진삼청	꼭조미성	건성기민	제체
어	어실	어제	구호	이대		근병	기회	

佛	佛	佛	千	圓	淨	等	貧	闇
十	當	西	百	滿	法	饒	窮	夜
方	來	方	億	報	身	益	者	中
常	教	教	化	身		一		
住	主	主	身	身	毘	切	永	為
真	彌	阿	釋	盧	盧	衆	得	作
如	勤	彌	迦	舍	遮	生	伏	光
佛	尊	陀	牟	那	那	清	藏	明
			牟	佛	佛		平	於
			尼					

불	불	불	천	원	정	등	빈	암
십	당	서	백	만	법	요	공	야
방	내	방	억	보	신	의	자	중
상	교	교	화	신		일		
주	주	주	신	신	비	체	영	위
진	미	아	석	노	로	중	득	작
여	륵	미	가	사	자	생	복	광
불	존	타	모	나	나	청	장	명
			니	불	불		평	어





尊者 十方常住 清淨

僧寶 如是三寶 無量

無過 一一周徧 一一塵

刹 唯願慈悲 憐愍有

情 降臨道場 受此供養

香華請 歌詠

佛身普徧十方中

三世如來一體同

廣大願雲恒不盡

존자 십방상주 청정

승보 녀시삼보 무량

무변 일일주변일일진

찰 유원자비 연민유

정 강림도량 수차공양

향화청 가영

불신보변십방중

삼세어래일체동

광대원은항부친

汪洋覺海渺難窮

故我一心皈命頂禮

獻座真言

妙菩提座勝莊嚴

諸佛坐已成正覺

我今獻座亦如是

自他一時成佛道

唵 縛日羅 未那野

娑婆訶

왕양각해묘난궁

고아일심기명례

헌좌진언

묘보리좌승장엄

제불좌이성정각

아금헌좌역여시

자타일시성불도

옴 바아라 미라야

사바하

靜 緣 覺 來

欲建曼拏羅先誦

淨法界真言

唵 喃

茶 偈

供養十方調御士

演揚清淨微妙法

三乘四果解脫僧

願垂慈悲哀納受 (三說)

욕건 만나라선승

정법계진언

음 남

대 계

공양십방조어사

연양청정미묘법

삼승사과해탈승

원수자비애납수 (삼설)

十六四多羅尼

杳羞羅列 齊蒼虔誠

欲求供養之周圓 須伏

加持之變化 仰唯三寶

特賜加持 南無十方

佛 南無十方法 南無

十方僧

無量威德自在光明勝

妙力變食真言

십륙사다라나

향수나열 제자전성

육구공양지주원 수장

가지지변화 앙유삼보

특사가치 나무시방

불 나무십방법 나무

십방승

무량위덕자재방광명승

묘력변식진언

那莫 薩婆多陀 拔多

婆路其帝 唵 三婆羅

三婆 唵 吽

施 甘露水真言

南無素魯嚩耶 怛他揭

多耶 怛姪他 唵 素

魯素魯 嚩羅素魯 縛

唵素魯 娑婆訶

나막 살바다타 아다

바로기제 음 삼바와

삼바와 (이하각칠번  
배지삼번)

시 감로수진언

나무소로바야 다타아

다야 다나타 음 소

로소로 바와소로 바

와소로 사바하

一字水輪觀真言

唵 𑖀𑖅𑖅𑖅

乳海真言

南無三滿多 沒馱喃

唵 𑖀

運心供養真言

願此香供遍法界

普供無盡三寶海

慈悲受供增善根

일 자수 륜 관 진언

음 밤 밤 밤 밤

우 해 진 언

나 무 삼 만 다 못 다 남

음 밤

운 심 공 양 진 언

원 차 향 공 변 법 계

보 공 무 진 삼 보 해

자 비 수 공 증 선 근

令法住世報佛恩

那莫 薩婆怛他 我帝

毗藥尾 薩嚩 暮契毗

藥薩婆他欠 烏那我帝

頗兜惠捨 唵 我我

那釧 娑嚩訶

十七真言勸供

普供養真言

唵 我我那 三婆々

영법주세보불은

나막 살바다타 아제

백미 새바 모계약살

바다캄 오나아제

바라혜맘 음 아마

나캄사바하

십칠진언 권공

보공양진언

음 아아나 삼바바

婆我尽 吽

出生供養真言

唵

淨食真言

唵 多迦縛尽 吽

願成就真言

唵 阿暮佉 薩婆多尽

舍多野 始吠吽

補闕真言

바아라 흠

출생공양진언

음

정식진언

음 다가바라 흠

원성취진언

음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흠

보결진언



唵 户魯户魯 舍野謨

契 娑婆訶

普回向真言

唵 舍摩只 舍摩只

尾摩那 舍只摩訶

左佉只縛咩

稽首西方安樂刹

接引衆生大導師

我今發願願往生

唵 호로호로 사야모

계 사바하

보 회향진언

唵 사마라 사마라

미 마나 사라마하

좌 거라바흠

계수서방안락찰

접인중생대도사

아금발원원왕성

唯願慈悲哀攝受

願以此功德及精進

十八祝願

仰告十方三世帝網重重

無盡三寶慈尊不捨慈悲

為作證明

上來所修功德海

回向三處悉圓滿

奉為云云

유원자비애섭수

원이차공덕급정진

십팔축원

앙고십방삼세제망중중

무진삼보자존불사자비

의작증명

상래소수공덕해

회향삼처실원만

봉의 (운운)

今日至誠發願齋者仁川

市柳洞三二番地 居住

清信女郭氏普光華

伏爲 所薦

亡父壬戌生郭瑞益

亡母戊辰生朴氏清淨行

仰蒙佛菩薩加被之妙力

往生極樂大發願

法界祝願 靈駕記付

금일 지성발원 재자 인천

시 유동 삼십이 번지 거주

청신여파씨보광화

복의 소천

망부임술생파서아

망모무진생박씨청정행

영가

앙몽불보살가피지묘력

왕생극락지대발원

법계축원 영가기부

上世先亡父母多生師長  
 累世宗親 弟兄叔伯一  
 切眷屬 各列位靈駕  
 此寺最初創建以來至於  
 重建重修 化主施主  
 都監別座 佛前內外  
 日用凡諸汙物 大小結  
 緣 隨意同參 事々施  
 主已亡者 各列位靈駕

상세선망부모다생사장  
 누세종친 제형숙백일  
 체친속 각열위영가  
 차사최초창건이라지어  
 중건중수 화주시주  
 도감별좌 불전내외  
 일응범제습물 대소결  
 연수의동참 사사시  
 주이망자 각열망영가

道場內、道場外、洞上、洞下、  
 有主、無主、沈魂、滯魄、一切  
 哀魂、佛子等、各列位靈駕、  
 鐵圍山間、五無間獄、一日  
 一夜、萬死萬生、受苦含靈、  
 等衆、各列位靈駕、兼及法  
 界、四生七趣、三途八難、四  
 恩三有、一切有識、含靈等  
 衆、各列位靈駕、

도량내, 도량외, 동상동하  
 유주무주, 침혼체백, 일체  
 애혼불자 등, 각열의영가  
 철위산간, 오무간옥일일  
 일야, 만사만생, 수교함영  
 등중, 각열의영가, 검금법  
 계사생칠취삼도팔난사  
 은삼유, 일체유식, 함영 등  
 중, 각열명영가

다 음 성 축 은

今此至極至誠禮拜祈禱

發願齊着仁川市松月洞

一街十二番地居住

乾命 癸丑生 朴泰형

坤命 癸丑生 李氏大願

兩住保體

仰蒙觀世音菩薩加被之

妙力身強鐵石命若泰山

금차지극지성예배기도

발원재자인천시송월동

일가십이번지거주

건명계축생박태형

海 願 公 明 계축생 리씨대원해

양주보체

앙몽판세음보살가피지

모력신강철석명약태산

福德具足、壽命長遠

之大願

再祝

保體

仰蒙云云

日日有千祥之慶、時々無

百害之災、壽山高屹、福海

汪洋之大願

三祝

仰蒙云云、六根清淨、四大

복되우족수명장원

지대원

재축

보체

앙몽운운

일일유천상지경시시무

백해지재수산고흘복해

왕양지대원

삼축

앙몽운운육근청정사대

強建子孫昌盛富貴榮華  
 東西四方出入諸處常逢  
 吉慶不逢災害官口舌三  
 八難四百四病一時消滅  
 之  
 大願  
 或 || 叅禪者疑困獨露念  
 佛者三昧現前看經香慧  
 眼通透病苦者速得快差  
 職務者隨分成就之大願

강건자손창성부귀영화  
 동서사방출입제처상봉  
 길경불봉재해판구설삼  
 팔난사백사병일시소멸  
 지  
 대원  
 혹 || 참선자의단독노염  
 불자삼매현전간경자혜  
 안통투병고차속득패차  
 직무자수분성취지대원



或 || 今日供養齊者佛前  
信心堅固永不退轉斷々  
承々萬代有傳香華不絕  
之 大願

衆生無邊誓願度  
煩惱無盡誓願斷  
法門無量誓願學  
佛道無上誓願成  
南無釋迦牟尼佛二說

혹 || 금일 공양 재자 불전  
신심 견고 영불 퇴전 계계  
승々 만대 유전 향화 불절  
지 大원

중생 무변 서원도  
번뇌 무진 서원단  
법문 무량 서원학  
불도 무상 서원성  
나무석가모니 불이 설

南無是我本師釋迦牟尼

尼佛 一說

十九觀音施食

南無圓通教主觀世音

菩薩

南無道場教主觀世音菩

薩

南無圓通會上佛菩薩

(振鈴三下)

據娑婆世界云云)

나무시아본사석가모

니불 일설

십구관음시식

나무원통교주관세음

보살

나무도량교주관세음보

살

나무원통회상불보살

(거사바세계운운)

着語

靈源湛寂 無古無今

妙體圓明 何生何死

便是 釋迦世尊 摩竭

掩關之時節 達摩大師

少林面壁之家風

所以泥蓮河側 擲示雙

趺 葱嶺途中 手携隻

履 諸佛子 還會得

차어

령원담적 무고무금

묘체원명 하생하사

변시 석가세존 마갈

엄관지시절 달마대사

소림면벽지가풍

소이니련하축 파시쌍

부 총영도중 수위척

리 제불자 환회득

○  
○  
○

湛寂圓明底一句底(良久)  
 俯仰隱玄玄 視聽明歷  
 歷 若也會得 頓證法  
 身 永滅飢虛 其或未  
 然 承佛神力 仗法加  
 持 赴此香壇 受我妙  
 供 證悟無生

着語

以此振鈴伸召請

담적원명지일구마(조음왔다)  
 부양은현현시청명력  
 려 약야회득 돈증법  
 신 영멸기허 기혹미  
 연 승불신력 장범가  
 지 부차향단  
 공 증오무생

책어

이차진령신소칭

○ 冥途鬼界普聞知

願承三寶力加持

○ 今日今時來赴會

上來召請 諸佛子等

各列位靈駕

着語

慈光照處蓮花出

○ 慧眼觀時地獄空

○ 又况大悲神呪力

명도 귀계보문지

원승삼보력가지

금일금시래부회

상래소청 제불자등

각열위영가

착어

사광조처련화출

혜안관시지옥공

우항대비신주력

衆生成佛刹那中

千年一片爲孤魂 志

心諦聽 志心諦受

(神妙章句(云云) 若

人欲了知(云云) 破地

獄真言(云云)

南無常住十方佛 南無

常住十方法 南無常住

十方僧

중성성불찰나중

천수일편의교훈 지

십제청 지십제수

(신묘장구(은은) 약

인욕요지(은은) 과지

옥진언(은은)

나무상주십방불 나무

상주십방법 나무상주

십방승

南無大慈大悲救苦觀世

音菩薩

南無大方廣佛華嚴經

孤魂請

一心奉請 實相離名

法身無跡 從緣隱現

若鏡像之有無 隨業昇

沈 如井輪之高下 妙

變莫測 幻來何難 願

나무대자대비구고관세

음보살

나무대방광불화엄경

고혼청

일심봉청 실사의명

법신무적 종연은한

약경상지유무 수업승

침 여정른지고하 묘

변막추 화래하난 원

我今此 爲薦齊者 (某  
 人冥駕) 承佛威光 來  
 詣香壇 受齋法供  
 香烟請 歌詠  
 三魂杳杳故何處  
 七魄茫茫去遠鄉  
 今日振鈴伸召請  
 願赴冥陽大道場  
 諸佛子等 各各各矣

아금차 위천재자 (모  
 인영가) 승불의광 왜  
 례향단 수침법공  
 향연청 가영  
 삼혼모모귀하처  
 질백망망거원향  
 금일진령신소창  
 원부명양대도량  
 제불자등 각열명영



駕

上來召請諸佛子等

受位安座真言(云云)

百草林中一味新

趙卅常勸幾千人

烹將石澌江心水

願使亡矣敬苦輪

宣密加持 舟田潤澤

業火清涼 各求解脫

가

상내소청제불자등

수위안좌친언(운운)

백초악중일미신

조주상권괴천인

평장석정앙심수

원사망영흘고륜

선밀가지 신전운태

엄화청량 각구해탈

( 变食真言等四陀羅尼 )

稱揚聖號

南無 寶如來 願諸孤

魂 破除慳貪 法財具

足

南無 妙色身如來 願除

孤魂 離醜陋形 相互

圓滿

南無 廣博身如來 願除

변식진언 등사 다라니 )

칭양성호

나무다보여래 원제교

혼 과제간탐 범재수

족

나무묘색신여래 원제

고혼 리추루형 상호

원만

나무광박신여래 원제

孤魂 捨六凡身 悟虛

空身

南無離怖畏如來 願除

孤魂 離諸怖畏 得沮

槃樂

南無甘露王如來 願我

各各 列名矣 駕 咽喉

開通 獲甘露味<sup>03</sup>

<sup>01</sup>願此如持食 普遍滿十

고 혼 사육범신 오허

공신

나무리포외여래 윈제

고 혼 이제포외 득열

반락

나무감노왕여래 윈하

각각 열명영가 인후

개동 회감노미

윈차가지식 보변만심

方 食者除飢渴 得生

安樂國

施鬼食真言

唵味其味其 野々味其

普供養真言(云云)普回

向真言(云云)

受我此法食 何異阿難

饌 飢腸咸飽滿 業火

頓清涼 頓捨貧嗔癡

방 식자제기갈 득생

안락국

시귀식진언

옴미기미기 야야미기

보공양진언(운운)보회

향진언(운운)

수아차법식 하이아난

찬 기장함포만 업화

돈청량 돈사람지치

常故佛法僧 念々菩提

心 處々安樂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

來

如來十號

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

상키 불범승 염々 보리

심 처々 일낙국

범 소유상 개시 허망

약 견 제상 비상 즉 견 여

래

여 래 십 호

여 래 응공 정 변 지

명행족 선서 세간 해

무상사 조어 장부 천

人師佛世尊 佛子行道已來

世得作佛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為樂

願我盡生無別念(云云)

乃至同見無量壽 皆共

成佛道

奉送篇

奉送孤魂自有情

인사불세존 불자행도이 왜

세득작불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적멸위락

원아진생무별염(운운)

내지등전무량수 개공

성불도

봉송편

봉송고혼자유정

地獄餓鬼及傍生

我於他日建道場

不違本誓還來赴

諸佛子 既受香供 已

聽法音 今當奉送 更

宜虔誠 奉謝三空

普禮十方常住佛 普禮

十方常住法 普禮十方

常住僧

지옥아귀급방생

아어타일진도광

불위본서환래부

제불자 기수향공 이

청법음 금당봉송경

의건성 봉사삼보

보례십방상주불 보례

십방상주법 보례십방

상주승

行步傷

穰行千里滿虚空

故途情忘到淨邦

三業投誠三空禮

聖凡同會法王宮

○散花落(三說)南無大聖引

路王菩薩(三說)法性傷(至

燒臺)

今此門外奉送齋(云云)

행보계

이행천외반허공

귀도정망도정방

삼업투성삼보계

성범동회법왕궁

산화락(삼설)나무대성인

로왕보살(세번)법성계(지

소대)

금차문외봉송재자(운운)



至某矣

上來施食諷經念佛功

德離妄緣耶不難妄

緣耶難妄緣則天堂

佛刹任性逍遙不難

妄緣則且聽山僧末

後一偈

四大各難如夢中

六塵心識本來空

지모영

상래시식중경염불공

덕리망연야불리망

연야리망연즉천당

불찰임성소요불리

망연즉차청산승말

후일계

사대각리여몽중

육진심식본래공

欲識佛祖圓光處

日落西山月出東

念十方三世一切諸佛

諸尊菩薩摩訶薩摩

訶般若波兜密

願往生願往生願在彌

陀(云云)

燒錢真言

음비로기데사바하

욕식불조회광처

일락서산월출동

염십방삼세 일체제불

제존보살 마하살 마

하만약과라밀

원왕생원왕생원재미

타(운운)

소전진언

음비로기데사바하

奉送真言

唵縛日羅 菩提目叉目

上品上生真言(云云)

處世間如虛空 如蓮華

不着手 心清淨超於彼

稽首禮無上尊

故依佛 故依法 故

依僧 故依佛 而足

尊 故依法 離欲尊

봉송진언

옴바아라 사다목차목

상품상생진언(은은)

처세간여허공 여련화

불차수 심청정초어피

계수례무상존

귀의불 귀의법 귀

의승 귀의불 양쪽

존 귀의법 리욕존

故依僧 衆中尊 故  
 依佛竟 故依法竟  
 故依僧竟 善步雲程  
 伏惟珍重  
 普回向真言(云云)  
 火蕩風摧天地壤  
 寥寥長在白雲間  
 一聲揮破金城壁  
 但向佛前七宝山

귀의승중중존귀  
 의불경귀의법경  
 귀의승경선보운경  
 복유진중  
 보희향진인(운운)  
 화탕풍요천차피  
 으으상재백운간  
 일성회과금성벽  
 단향불전찰보산

南無歡喜藏 摩訶空

續佛

南無圓滿藏菩薩摩訶薩

南無回向藏菩薩摩訶薩

나 무 환 히 장 보 살 마 니 보

적 톨

나 무 원 만 장 보 살 마 하 살

나 무 회 향 장 보 살 마 하 살

二十、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도	다	역	내	무	식	부	여	불	온	관
몽	고	무	지	안	무	정	시	이	개	자
상	심	득	무	계	무	부	사	색	공	재
구	무	이	노	내	안	증	외	색	도	보
경	가	무	사	지	이	불	자	족	일	살
열	해	소	역	무	비	감	시	시	체	행
반	무	득	무	의	설	시	공	공	고	심
삼	가	고	노	식	신	고	족	족	역	반
세	해	보	사	계	의	공	시	시	사	야
제	고	리	진	무	무	종	색	색	리	바
불	무	살	무	명	색	무	색	스	차	라
의	유	타	고	역	성	색	불	상	색	밀
반	공	의	점	무	향	무	생	행	불	다
야	포	반	멸	무	미	수	불	식	이	심
바	원	야	도	명	축	상	멸	공	공	경
라	리	바	무	진	법	행	구	공	오	
밀	전	라	지							
다		밀								

고득 아늑다라삼막 삼보리 요지만야바라밀  
 다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  
 무등등주 능제일체요 전실불허 요설반야바  
 라벌다주 즉설주왈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하

二十一 心 經

청정법신바로자나불 원만보친노사나불  
 천백억화신사가모니불 구름도사아미타불  
 당내하쟁미득존불 시방삼세일체제불  
 시방삼세일체존법 대성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판세음보살  
제존보살마하살  
마하반야바라밀

음 마휴라세 사바하

나무 동방해탈주세계 허공공덕 청정미진

등목단정 공덕상 광명화 과드마 유외광

보체상 최상향 공양홀 종종장엄정계 무량

무변 일월광명 원력장엄 변화장엄 범계출

생 무장애왕 여래아리하 삼막삼불타



二十二 의상조사법계

義湘祖師法偈

法性圓融無二相  
 諸法不動本來寂  
 無名無相絕一切  
 證智所知非餘境  
 真性甚深極微妙  
 不隨自性隨緣成  
 一中一切多中一

법성원융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심즉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

一即一切多即一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  
 無量遠劫即一念  
 一念即是無量劫  
 九世十世互相即  
 仍不雜亂隔別成  
 初發心時便正覺  
 生死涅槃常共和

일즉일체다즉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역여시  
 무량원점즉일염  
 일염즉시무량점  
 구세십세호상즉  
 잉불잡난격별성  
 초반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理事冥然無分別  
 十佛普賢大人境  
 能仁海印三昧中  
 繁出如意不思議  
 兩室益生滿虛空  
 衆生隨器得利益  
 是故行者還本際  
 回息妄想必不得  
 無緣善巧捉如意

力士명연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경  
 능인해인삼매중  
 번출여의불사의  
 우보의생만허공  
 중생수기득리의  
 시고행자환본제  
 회식망상킬부득  
 무연선교추여의

故家隨分得資糧

以陀羅尼無盡室

莊嚴法界突寶殿

窮坐突際中道床

舊來不動名爲佛

二十三 入山偈

世尊當入雪山中

一坐不知經六年

世尊當入雪山中

귀가수분득자량

이다라니무진보

장엄법계실보전

궁좌실제중도상

구래부동명외불

世尊當入雪山中

一坐不知經六年

세존당입설산중

일좌부지경육년

因見明星云悟道  
言詮消息遍三千

### 朝偈頌

三界猶如及井輪  
百千萬劫歷微塵  
此身不向今生度  
更待何生度此身

인견명성운오도  
언전소식변삼천

### 조계송

삼계유여음정류  
배천만겁역미진  
차신불행공성도  
경대하생도차신

念 佛 偈

阿 彌 陀 佛 在 何 方

着 得 心 頭 切 莫 忘

念 到 念 窮 無 念 處

六 門 常 放 紫 金 光

立 志 偈

自 從 今 身 至 佛 身

염 불 계

아 미 타 불 재 하 방

착 득 심 두 절 막 망

염 도 염 궁 무 염 처

육 문 상 방 자 금 광

입 지 계

자 종 금 신 지 불 신

堅持禁戒不毀死  
唯願諸佛作證明  
寧捨身命終不退

出山偈

崑々落落淨標々  
獨步乾坤誰伴我  
若也山中逢子期

견자금계부혜범  
유원제불좌증명  
영서신명종불퇴

출산계

외々낙々정나々  
독보견곤수반아  
약야산종봉자기

豈將黃葉下山下

聽法偈

此經甚深意

大衆心渴仰

唯願大和尚

虎爲衆生說

기장황엽하산하

청법계

차경심심의

대중심갈양

유원대화상

광의중생설



靈前拜禮

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淨雲自体本無矣

生死去來亦如然

靈前拜禮

生종하처래

사향하처거

생야일편부운기

사야일편부운멸

부운자체본무실

생사거래역여연

獨有一物常獨露

湛然不隨於生死

2. 生時的々不隨生

死去當々不隨死

生死去來無干涉

正体當々在目前

3. 一念保觀無量劫

獨유 일물 상독로

담연 불수 어생사

생시 죄々 불수 생

사거 당々 불수 사

생사 거래 무간섭

정체 당々 재목 전

일념 보관 무량 겁

無去無來亦無住

如是要知三世事

超諸方便成十方

法華經四句偈

諸法從本來

常自寂滅相

佛子行道已

무거무왜역무주

여시으지삼세사

초제방편성십력

법화경사구계

제법종본래

상자적멸상

불자행도외

來世得作佛

金剛經四句偈

1. 凡所有相

2. 皆是虛妄

3. 若見諸相非相

4. 即見如來

來世득작불

금강경사구계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二十四、無常戒 無 상 계

부무상계자는 일열반지은문이며 월교해지지  
 항이와 시교로 일체제불이 인차계교로 이 열  
 반하시교 일체중생도 인차계교로 이 해하나  
 니 영가야 여금일야형탈근진하교 영식독노  
 하야 수불무상정계하니 하량야오 영가야  
 집 화통연예대천이구제하교 수미거해도마멸  
 무여이던 하항차신의 생노병사와우비교뢰능  
 여원외다 영가야 발모조치와외륙근골파수뢰  
 구생은 개귀어지하교 타체농혈파진야연말파  
 담누정기와대소변외은 개귀어수하교 난기은

귀화하고 동천은 귀중해야 사대각리하니 금  
 일망신은 당재하치오 영가야 사대각리허가하  
 야 비가역석이래여 종무지이래로 지우금일히  
 무명연행하고 행연식하며 식연명색하고 명  
 색연육입하며 육입연촉하고 촉연수하며 수  
 연어하고 어연취하며 취연유하고 유연생하  
 며 생연노사우비고노하나니 스무명멸직행멸하  
 고 행멸직식멸하며 식멸직명색멸하고 명색  
 멸직육입멸하며 육입멸직촉멸하고 촉멸직수

명하며 수면직아명하고 애명직취명하며 취  
 명직유명하고 유명직생명하며 생명직노사우  
 비요노명하나나라 제범종본래오상자적명상이  
 라 불자행도리하면 내세득작불하며 제행이  
 무상하야 시생명법이래 생명명이하면 적명  
 위락이나라 귀의불타계하며 귀의달마계하고  
 귀의승가계하며 나무과거보승여래 응 공정  
 변지 명행족 선서세간해 무상사조어장부  
 천인사불세존이나라 활각오음각누자하고영식

이독노하야 누를무상정계하니 기불괘재며  
 기불괘재야 천당불찰예 수렴왕생하리니 래  
 활々々이로다 서래조의최당이여 차칭기심성  
 본행이로다 묘제담연무처소연만은 산하대  
 지현진광이로다

### 무상계해설

대저무상계자는 열반에드러가는요문이며 고  
 해를 건너가는자항이나라 이런연고로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이 무상계를 인하여 고로 지  
 열반에 드시고 일체 모든 중생도 이 무상계를  
 인하여 고로 지 고해를 건너나니 영가야  
 비이젯날에 형탈근진하고 영식이 홀로 드  
 날여서 부처님의 무상계를 받으니 열마나  
 다 행함이오 영가야 점화통연예 퍼천세계가  
 다 부서지고 수미저해도 마멸하야 나무미없  
 으 이어던 벗지 하물며 이 몸의 나서는 지  
 병드려 죽은 것과 우비고 노가 능여 원위 마명

가야 발모초치와 귀족은 골파수노구석은 다  
 저 땅으로 도라가요 태태농혈과 친액연말과  
 담루성거와 대소변리는 다 제물로 도라가요  
 파듯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요 통하요 천하  
 는 것은 바람으로 도라가서 사대가 각각  
 여이였으니 이젯날 죽은 몸은 마땅히 어편  
 곳에 있는 교 명가야 사대가 허가해야 과히  
 어석지말지나라 · 네가 무시 이래로 좃차 이젯  
 날까지 일도록 무명이행을 반연하요 행은 식

을 반연하며 식은 명색을 반연하고 명색은  
육입을 반연하며 육입은 축을 반연하고 축  
은 수를 반연하며 수는 어를 반연하고  
어는 취를 반연하며 취는 유를 반연하고  
유는 생을 반연하며 생은 노사우비고 노  
를 반연하나니 스무명이 멸한 직행이 멸하고  
행이 멸한 직식이 멸하며 식이 멸한 직명색  
이 멸하고 명색이 멸한 직 육입이 멸하며  
육입이 멸한 직 축이 멸하고 축이 멸한 직

받은 것이 멸하며 받은 것이 멸한즉 사랑이  
 멸하고 사랑이 멸한즉 죄도 멸하며 죄가  
 멸한즉 유도멸하고 왔은 것이 멸한즉 나는  
 것도 멸하며 나은 것이 멸한즉 노사우비요  
 노가 다 멸하나 나라 모든 법이 근본으로  
 좇차 항상 스사로 적멸한 상이 나라  
 불자가 이도를 행하기만 하면 내세에  
 득 작불하며 세행이 무상하여 생멸법이  
 의 생명이 멸하기 하마하면 적멸이 낙이

되니라 불타 계예 귀의하며 달마 계예 귀의하고  
 승가 계예 귀의하며 과거보승여래 응공정변  
 지명행족 선사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천  
 인사 불세존예 귀의할것이니와 오음각루  
 자를 달각하고 영식이독로하여 부처님의  
 무상정계를 받으니 엇지 쾌활치않으며 엇지  
 쾌활치않으랴 천당불찰예 수염왕생하리니  
 쾌활하고 쾌활하도다  
 서래조의최당당  
 西來祖意最當々이여

자정기심성본향  
自淨其心性本鄉이로다

묘체담연무처소

妙體湛然無處所언만은

산하대지현진광

山河大地現真光이로다

二十六、三頂禮

삼정례

지삼귀명정례 상주법계 진언공중 반야해

회 남해보광산상 호 흑룡범과지천상 서방

재보살	여략	혹자	애	삼십	마하	대비	여	음
마하살	대비	혹위	말	십이	하살	대원	락	석
정법	대원	분	만	응신	해안	대성	현	계
명왕	대성	형	사	심	고철	대자	일	접
성	대자	산	천	사	처	정	천	녹
판자	백의	체	작	무	보	백	슈	슈
재	판자	응	가	외	타	의	안	연
발		제	라	력	락	판	지	개
취		중	슈	살	카	자	형	어
대		생	만	산	사	재	의	구
		심	사	도	부	보	탕	품
		소	천	양	사	살	말	심
		원	모	요	의	만	만	성
		구	다	주	덕	산	산	구
		발	라	무	슈	심	지	요
		고	비		용	치	장	응
					무	회	회	념

순염주홍    검투단하    미만초월    사충다괴    시  
 호길상    교    소의이목환중동    좌    청련이    신  
 엄백복    향점의요성찰    구애    사    월현어구소  
 형분중슈    여    춘행어만국    체비군방    대비대  
 원    대성    대자성    백의관자재보살    마하살

二十七、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제이십오

이시배    무진의보살이    즉종좌기하사    편단우  
 견하시고    합상향불이    착시언하시대    세존하



관세음보살은 이하인연으로 명관세음이시나  
 고 불교무친의보살하시대 선남자아 약유무  
 량백천만억중생이 수제고외하다가 문시인세  
 음보살하고 일심충명하면 관세음보살이 즉  
 시관기음성하야 개득해탈케하시외와  
 약유지시관세음보살명자난 설입대화하야도  
 화불능소하리나 유시보살의신력고라  
 약위대수소프하야도 충기명호면 즉득천처케  
 하며 약유백천만억중생이 의구금 은유리차

거 마뢰 신호호박 진주등보해야 입이매해  
 라가 가사혹풍이 취기선방하야 포타라찰귀  
 국하야도 기중약유내지일인총판세음보살  
 자면 시제인등이 개득해탈라찰지난하뢰니  
 이시인연으로 명판세음여니과 약부유인이  
 임당외해하야도 총판세음보살명자면 외소집  
 도장이 침단단피하야 이득해탈하며 약삼천  
 대천국토에 만중야차와살이 육내뢰인하야도  
 문기총판세음보살명자면 시제약귀 상불능이

악안시지어니 황부가해아  
 설부유인이 약유죄커나 약무죄커나 추제가  
 쇠로 검게기신하야도 증판세음보살명자면  
 개실단피하야 죽득해탈하며 약삼천대천국도  
 예만중환 원적에 유일상 주장재상인하야  
 재지중보하교 경과협노할재 그중일인이 작  
 시창언호대 제선남자아 물득공로하교 여등  
 이응당일심증판세음보살명호하면 시보살이  
 능이무외로 시어중생하시어나 여등이 약증

명자면 어차원적에 당득해탈하리다 중상인  
 이 문하고 구발성언호대 나무관세음보살이  
 라하야 증기명교로 주득해탈하리다 무진의  
 여 관세음보살다하살의 위신지력이 외외여  
 시하리다 약유중생이 다어음욕하야도 상염  
 공경관세음보살하면 편득리욕하며 약다진에  
 하야도 상염공경관세음보살하면 편득리진하  
 며 약다우치하야도 상염공경관세음보살하면  
 편득리치하리다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유

여시 등대위 신력 하야 다소 오익 하니 시고로  
 중생이 상응심염이 니와  
 약유 여인이 설욕구남 하야 레배공양 관세음보  
 살하면 평생복덕지해지남하며 설욕구여 하야  
 도 평생 단정유상지여 하야 속식덕본 하야 중  
 인애경하 니와 무친의여 관세음보살이 유여  
 지력하 니와 약유 중생이 공경레배 관세음보살  
 하면 복불당연 하리니 시고로 중생이 개응  
 수지 관세음보살 명호 니와 무친의여 약유인이

수지육십이여 항하사보살명자하교 부지형토득  
 공양음식의복 와주 의약하면 어여의에 운  
 하오 시선남자 선여인의공덕이 다아 부아  
 무진의언하사대 삼다하나다 세존하 불언하  
 사 약부유인이 수지판세음보살명호호대 내  
 지일시와도 례배공양하면 시이인복이 정등  
 무이하야 어백천만여점예 불가공진하리라  
 무진의여 수지판세음보살명호하면 득여시무  
 왕무변 보덕지리하리라 무진의보살이 백불

언하시며 세존하 판세음보살이 운하유차사  
 바세계하시며 운하이의중생설법하시며 방편  
 지력은 기사운하있고 불교무친의 보살하시  
 대 선남자아 약유국토중생이 응이불신득도  
 자난 판세음보살이 즉현불신이의설법하며  
 응이백지불신득도자난 즉현백지불신이 의설  
 법하며 응이성문신득도자난 즉현성문신이  
 의설법하며 응이범왕신득도자난 즉현범왕신  
 이의설법하며 응이제석신득도자난 즉현제석

신이 위설법하며 응이 재천신득도자난 즉현  
 자재천신이 위설법하며 응이 대재천신득도자  
 난 즉현대재천신이 위설법하며 응이 천대장  
 군신득도자난 즉현천대장 군신이 위설법하며  
 응이 비사문신득도자난 즉현비사문신이 위설  
 법하며 응이 소왕신득도자난 즉현소왕신이 위  
 설법하며 응이 장자신득도자난 즉현장자신이  
 위설법하며 응이 거사신득도자난 즉현거사신  
 이 위설법하며 응이 재판신득도자난 즉현재판



신이 의설법하며 응이 바 라 문 신 득 도 자 난 즉 현  
 바 라 문 신이 의설법하며 응이 비 구 비 구 니 우 바  
 새 우 바 이 신 득 도 자 난 즉 현 비 구 비 구 니 우 바  
 새 우 바 이 신이 의설법하며 응이 장 자 거 사  
 재 판 바 라 문 부 여 신 도 자 난 즉 현 부 여 신이 의  
 설법하며 응이 동 남 동 여 신 득 도 자 난 즉 현 동  
 남 동 여 신이 의설법하며 응이 천 흥 야 차  
 전 달 바 아 수 라 가 수 라 긴 나 라 마 후 라 가  
 인 비 인 등 신 득 도 자 난 즉 개 현 지이 의설법하며

응이집금강신득도자난  죽현집금강신이의설법  
 하나니  무진의여시판세음보살이  성취여시공  
 덕하야  이종종형으로  유제죽토하야  도탈중  
 생하나니과  시고로  여등이  응당일심공양판세  
 음보살하면  시판세음보살마하살이  어로의급  
 난지중에  능시무외할새  시고로  차사바세계  
 개호지하야  위시무외자와하나니과  무진의보살  
 이  백불언하시대  세존하  아금당공양판세음  
 보살이라하교  죽해경중보주영낙이  가죽백천

량금하사 이이여지작시연하시대 인자아 수  
 차법시진보영낙하소서 시에 관세음보살이  
 불공수지켜시날 무진의부백 관세음보살언하  
 시대 인자아 민아등표로 수차영낙하소서  
 이시에 불표관세음보살하사 당만차무진의보  
 살과 금사중천룡 야차 진달바 아수라 가  
 루라진나라 마후라가 인비인등표로 수지영낙  
 하라 즉시관세음보살이 민제사중과 금어천룡  
 인비인등하사 수지영낙하시표 분작이분하사

일분은 통석가모니 불하시고  
 일분은 붕다보 불답하시니라  
 두진의 여 판세음보살이 유여  
 시자재신력하야 유여사바세제하나니라  
 이시에 무진의 보살이 게로 문왈  
 세존 묘상구시나 아금중 문피하압나니 불  
 자하인연으로 명외판세음교 우족묘상존이  
 계담무진의 하사대 여칭판음행하라  
 선응제방 소니라 흥서심여해하야  
 역접부사의로다 시 다천억불하야  
 발대칭정원이니라 아위여약설

하나니 문명 급진신을 심염불공파하면 능멸  
 제유고하리과 가사홍해의하야 최략대화항도  
 염외관음력으로 화항변성지하며 후도유거해  
 하야 룡어제귀란에도 염외관음력으로 파광  
 이 부릉몰하며 후재수미봉하야 위인소취타  
 하야도 염외관음력으로 여일허공주하며  
 후피악인축하야 타략금강산하야 염외관  
 음력으로 부릉손일모하며 후치원적으하야  
 각집도가해라도 염외관음으로 함주기자심하

며 후조왕난교하여 임형옥수종해도 염괴판  
 음력으로 도심단단피하며 후수금가쇄하며 수  
 족괴주제하여도 염괴판음력으로 석연득해탈하  
 며 주저제독약으로 소옥해신자라도 염괴판  
 음력으로 환착이본인하며 후우악라찰파득  
 용제위등하여도 염괴판세음력으로 사실불잡  
 해하며 약약수위으하여 리아조가포라도 업  
 괴판음력으로 질주무변방하며 원사금복질이  
 기득연화연하여도 염괴판음력으로 심성자희

거하며      운뢰고제전하며      강론주대우라도      염  
 피관음력으로      응시득소산하며      중생외곤액하  
 야      무량고림신하야도      관음묘지력이      능구세  
 간고니라      구족신통력하며      광수치방편하야  
 시방제국토에      무찰불현신하나니      종종제악취  
 와      지옥키축생과      생노병사고      이점실영멸  
 하나니라      진판형정광과      광대지해판과      비관  
 굄자판을      상원상척앙이니라      무구칭정광에  
 해일이      파제암하      능복재풍화하며      보명자세

간악의와 배제개리친이오 자이르대운이라 주  
 감노범우하야 멸제별죄염이니다 쟁송경판처  
 와 로외군전중에 염피판음력으로 중원실패  
 산하의와 로음판세음파 범음해조음의 승피  
 세간음하니 시고수상염하야 염염물생의하와  
 판세음정성이 어고죄사역에 능위작이고나라  
 구일체공덕하사 복취해무량하니 시고응정례  
 나라  
 이시에 지지보살이 즉중좌기하사 전백불언



하 시 되 세 존 하 약 유 중 생 이 문 시 판 세 음 보 살  
 품 자 재 지 업 파 보 문 시 현 하 시 난 신 통 령 자 는  
 당 지 시 인 의 공 덕 이 불 소 로 다 불 설 시 보 문 품  
 시 에 중 중 의 팔 만 사 천 중 생 이 개 발 무 등 등 아  
 누 다 라 삼 막 삼 보 괴 심 하 나 라

묘법련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이십오

지 파 에 무 진 의 보 살 이 곧 차 의 로 조 차 일 어  
 나 서 바 른 여 개 를 엿 매 이 고 합 장 하 야 부 처

남 계 향 하 고 말 삼 하 되 세 존 하 관 세 음 보 살  
 이 무 삼 인 연 으 로 일 흠 을 판 세 음 이 라 하 나 닛  
 요 부 처 남 계 서 무 진 의 보 살 께 고 하 사 대 선 남 자  
 야 만 약 무 량 백 천 만 여 중 생 이 있 어 모 든  
 고 죄 를 받 다 가 이 판 세 음 보 살 이 라 함 을 듣 고  
 일 심 으 로 일 흠 을 부 르 면 판 세 음 보 살 이 즉  
 시 에 그 음 성 을 들 어 보 시 요 다 해 탈 함 을  
 일 제 하 나 니 라 만 약 이 판 세 음 보 살 의 일 흠

을 외난이가 있으면 설령 큰 불에 들지라도  
 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보살의  
 위신력을 달미암은 연고요 만약 큰 물에  
 띄운바 이 될지라도 그명호를 일켜르면 옛흔  
 처소를 얻을찌요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괴 차기 마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갈새  
 가령 모진 바람이 그 배를 부러서 나칠키  
 죽으로 갈지경이라도 그중에 만약 내지한

사람이와도 관세음보살일흠을 일컫는 자  
 있을 지면 이 모든 사람들이다 나찰의 역을 해  
 탈함을 얻을 지와 이리한 인연으로 일흠을  
 관세음이라 하나라 만약 다시 사람이 있  
 어 죄해를 당할 때에 관세음보살의 일흠을  
 일컫는 자이면 사람의 잡은 칼이나 막  
 대가 즉시 등장 부러지 해탈함을 얻으리  
 과  
 만약 삼천대천국도 가운데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피롭게 하고저 하드래  
 도 그 관세음보살의 일흠일커름을 드를찌면  
 이모든 악귀가능히 악한눈으로 보지도 못  
 하리 어든 하물며 다시해침을 주겠나냐  
 설사 또 사람이왔어 죄가있거나 없거나  
 슈감 착고 항죄로 그몸을 열거서 매였을  
 찌라도 관세음보살일흠을 일켰나자이면 다  
 끊어지고 무너지 썩 허탈을 얻으리라  
 만약 삼천대천 국토에 원당하난도적이 가

운대 가득한바 상고주인 하나이 여러상업  
 자를 다리고 귀중한 보배를 사가지고 힘  
 한걸을 지날새 그중한사람이 잊치되 모든  
 선남자야 겁내지 말고 너희들은 응당히 일  
 심으로 관세음보살명호를 일켜를찌면 이보  
 살이 능히 두려움 없음을 중생에게 주나  
 니 너이들이 만약 일흠을 일켜를진대 윗  
 적은 맛당히 해탈을 얻을지라 한대 여러  
 상인이 듣고 함께 소래하야 나무관세음보

살을 일컫르며 그 인품을 부르고로 곧 해  
 탈함을 얻으니라  
 무진의야 판세음보살마하살의 의신력이 외  
 외하시기가 이 같으니라  
 만약 중생이 있어 음욕이 많을진대 항상  
 판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욕  
 심됨을 얻을 것이며 만약 진에심이 많을진  
 대 항상 판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진심됨을 얻을 것이며 만약 우치심이

땅을 진대 항상 판세음보살을 생각하오 공  
 경하면 문득 우치심편을 얻으리라  
 무진의야 판세음보살이 이리한 등 대의신력  
 이있어 오익케 한바 이 많은 지와 이리한 고  
 로 종생이 항상 응당히 마음으로 생각할  
 지니라  
 만약 녀인이 있어 설후 아들을 구하고 자 할  
 진대 판세음보살께 예배공경하면 문득 복  
 득지혜가 구족한 아들을 낳을찌은 설후 딸



을 구하고 지혈진대 문득 단정하고 자색  
 있는 딸을 낳으되 전세에 덕의 근본을 심  
 어 중인이 키케보고 공경할지니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이 이같은 힘이 있나니라  
 만약 중생이 있어 관세음보살께 공경배하  
 면 복이 헛되지않이 할찌라 이리한고로 중  
 생이 다 마땅히 관세음보살명호를 수지할  
 지니라  
 무진의야 만약 사람이 있어 육십이역 항하

사보살명자를 수지하교 다시 한평생토록 음  
 식과 의복과 와구와 의약으로 공양할지면  
 네뜻에 엇덧타 하나노 이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으나 적으나 부친의말삼하사대 심히  
 명으리다 세존하 부처님께서 말삼하사대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 관세음보살명호를  
 수지하야 내지 일치라도 레배공양할지면  
 이 두사람의복이 정히 갈아야 다음이 없  
 어서 백천만억겁에 가히 공진치 못하리라

무진 의야 판세 음보살 명호를 수지하면 이갈  
 은 무량 무변한 복덕의 리의를 얻으리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께 살어대 세존하 판세 음  
 보살이 었더하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시며  
 었더하게 중생을 위하야 설법하시며 방편  
 의 힘은 그일이 었더하 오닛가 부처님께서  
 무진약보살께 고하사대 선남자야 만약 국  
 토 중생이 앓어 응당히 부처 몸으로 제도함을  
 얻은 자이면 판세 음보살이 곧 부처 몸을 낫

호아 설법하시교 응당하 벽지불신으로 제  
 도함을 얻을 차이면 곧 벽지불신을 낫호아  
 설법하시교 응당하 성문신으로 제도함을  
 얻을 차이면 곧 성문신을 낫호아 설법하시  
 교 응당하 범왕신 제석신 자제천신 대자  
 재천신 천대장군신 비사문신 소왕신 장자  
 신 거사신 재판신 바라문신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신으로 제도함을 얻을 차이면  
 곧 범왕신 제석신 자제천신 대자재천신

가	법	얼	하	을	자	우	신	천
루	하	을	시	하	거	바	재	과
라	시	자	고	시	사	이	판	장
진	고	이	응	응	재	신	신	꾼
나	응	면	당	당	판	신	신	신
라	히	면	히	히	바	신	신	신
마	천	곧	동	동	라	신	신	신
후	룡	동	남	남	문	을	신	신
라	야	동	동	동	부	부	신	신
가	차	녀	녀	녀	녀	녀	신	신
인	전	신	신	신	신	신	을	을
비	달	을	으로	으로	으로	으로	로	로
인	바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등	아	로	로	로	로	로	로	로
의	수	로	로	로	로	로	로	로
신	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으 로 제 도 함 을 언 을 자 이 면 곳 다 낫 호 아  
 설 법 하 시 고 응 당 히 집 금 강 신 으 로 제 도 함 을  
 언 을 자 이 면 곧 집 금 강 목 을 낫 호 아 설 법 하  
 시 나 니  
 무 지 의 야 판 세 음 보 살 이 이 같 은 공 덕 을 성  
 취 하 야 종 종 형 상 으 로 모 든 국 토 에 다 니 며  
 중 생 을 도 달 하 시 나 니 와  
 이 러 한 고 로 너 의 등 이 응 당 히 일 심 으 로 판  
 세 음 보 살 을 공 양 할 지 니 이 판 세 음 보 살 이

두렵고 금하고 어려운 중에 능히 두려움  
업슴을 주는 지라 이려한 고로 이사바 세계에  
서 다 일흠하기를 두려움 없음을 주는 자  
라 하나 나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살오대 세존하  
내가 이제 맛당히 관세음보살께 공양하오  
리다 하고 끈 목에 거렸든 여려 보배구슬  
로 지은 영낙감으로 난 금 백천양에 치  
될 만한 것을 글너 주고 말삼하되 인자여 이

법으로 보시 하간 보배 영낙을 받으소서  
 폐에 관세음보살이 즐기여 받지않이하시거늘  
 무진의가 다시 관세음보살께 살오대 인차  
 여 아동을 불상히 역이사 이 영낙을 받  
 으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고  
 하사대 맛당히 이 무진의보살과 사중과  
 천룡 아차 전달바 아수과 가수과 간나와  
 마후라가 인비인등을 불쌍히 역일지나 이  
 리한고로 이 영낙을 받으라 하시대 즉시에



판세음보살이 사중파 천룡 인비인등을 불  
 쌍히역이여 그영낙을 받아 이분애 난호아  
 일분은 석가모니불께 드리고 일분은 다보  
 불탑에 드리시니라 무친의야 판세음보살이  
 이같은 자재신력이 있어 사바세계에 노시  
 니니라  
 저때에 지디보살이 곧 지뢰에서 일어나  
 부처님앞에 놓이와 실오래 세존하 만약  
 증생이 있어 이 판세음보살품의 자재한업과

보문으로 신통력을 시현 한 자를 드물찌면  
 맛당히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  
 을찌니라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에 회중  
 팔만사천종생이 다 무등등 아녹다와 삼막  
 삼보위삼을 얻으니라.

二十九  
찬 불 가

(一)

등글고또한

발근빛은

우주를싸고

고르고다시

넓은덕은

만물을길화

억만점토록

변함없는

부처님전에

한마음함께

기우려서

찬양합시다

(二)

저모든하늘

가운데에

가장높은요

이넓은세상

만류중에

제일귀하사

지혜와복덕

우족하신

부처님전에

한 마음함께 기우려서 찬양함시다

(三) 차비와큰힘 향하는곳 가림없도다

우리의원함 낮스파괴 사랑하옵서

안락과행복 주옵시는 부처님전에

한마음함께 기올려서 찬양함시다

三十一. 성탄정축가

(一) 세계조판 역천점에 제일성인 누구신가

삼천년전 인도국에 정반왕궁 뉘하시랴

<sup>후렴</sup>  
 만세 만세 만만세는 우리 불교 만만세요  
 만세 만세 여만세는 우리 교당 여만세라

(二) 감인사월 초팔일에 우리세존 탄강일세

보외소에 봄이 드니 우담발화 꽃피었네

(三) 시방삼세 제일이흐 천상천하 독전이와

고해중에 빠지중생 권지고저 출현하사

(四) 삼계도사 되오시니 우리자부 안이신가

깊은은덕 갈으려면 물이였고 산이나저

(五) 청화성절 오날날에 감격지심 없을손가

심향일주	카히들어	이구동음	경축하시
(六) 방도원정	우리형제	영산위의	강할시고
경축하시	경축하시	일심으로	경축하시

三十一 散會歌 산회가

불타 은혜  
 佛陀의 주신 恩惠로  
 우리 함께 모혀서

신구의 삼업  
 身口意 三業 말키요  
 삼보키의  
 三寶 敢依 하였네

일로부터 헤치는

우리 형제 자매야

다시 만날 때까지

신체 건강 지키세

대자비  
大慈  
悲하신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恒常도으시네

“끝”

荼毗篇 (火葬式)

나 무상 주시방불 나 무상 주시방불 나 무상 주시방불 나 무상 주시방승  
南無常住十方佛南無常住十方法南無常住十方僧說

削髮 (其一) (有髮者에는理髮이라함)

신원적모인영가생종하처와사향하처거생야일편부운기  
新圓寂某人靈鷲生從何處來死向何處去生也一片浮雲起  
사야일편부운멸부운자체본무실생사거래역여연  
死也一片浮雲滅浮雲自体本無實生死去來亦如然  
독유일물상독로담연불수어생사모령환회득담연적  
獨有一物常獨露湛然不隨於生死某靈還會得湛然的  
일물마화탕풍요천지괴은은장재백운간금자삭발  
一物塵火蕩風搖天地壞寥寥長在白雲間今茲削髮



단진무명 십사번노 하유부기 일편백운 황곡구 의다귀조진미소  
斷盡無明 十使煩惱 何由復起 一片白雲橫谷口 幾多歸鳥盡迷巢

목욕귀이

沐浴 (其二)

신원적모인영가 약인욕식불경계 당정괴의여허공 원의망상금제취

新圓寂某人靈駕 若人欲識佛境界 當淨其意如虛空 遠離妄想及諸趣

영심소향개무애 모령 환당정괴의 여허공마의혹미연 갱청주각 차정각

令心所向皆無碍 某靈 還當淨其意 如虛空麼其或未然 更聽註脚 此正覺

지성 상지제불하지육법 일일당당 일일구족 진상통 물물상현 부대수

之性 上至諸佛下至六凡 一當々 一一具足塵々上通 物々上現 不待修

성 오오명명 (염주장은) 환견마 (타하주장은) 환문마 괴오오견괴역문

成 了々明々 (枯拄杖云) 還見麼 (打下拄杖云) 還聞麼 既了々見既歷々聞

필경시개심마 불면유여정만월 역여천일방광명 습자목욕환망진구 회득

畢竟是箇甚麼 佛面猶如淨滿月 亦如千日放光明 今茲沐浴幻妄塵垢 獲得

금강불괴지신 청정법신무내외 거래생사일진상

金剛不壞之身 清淨法身無內外 去來生死一真常

세 수 (과삼)

洗手 (其三)

신원적모인영가 내무소래 여낭월지영현천강저무소저 사징공이형분  
 新圖寂某人靈駕 來無所來 如朗月之影現于江 去無所去 似澄空而形分  
 제찰모령 사대각리여몽중 육진삼삭본래공 육식불조회광처 일악사산  
 諸刹某靈 四大各離如夢中 六塵心識本來空 欲礙佛祖回光處 日落西山  
 월출동 금차세수 취외분명 시방불법 교연장내 만목청산무존수 현애  
 月出東 今茲洗手 取理分明 十方佛法 皎然掌內 滿目青山無寸樹 懸崖  
 살수장부아  
 撒手丈夫兒

세 족 (과사)

洗足 (其四)

신원적모인영가 생시적적불수생 사거당불수사 생사거래무간섭 정  
 新圖寂某人靈駕 生時的々不隨生 死去當々不隨死 生死去來無干涉 正  
 체당당재목전 금차세족 민행원성 일거일보 초등법운 단능일림키무념  
 體當々在目前 今茲洗足 萬行圓成 一擧一步 超登法雲 但能一念歸無念

고보비로성상행

高步毗盧頂上行

착구 (귀오)

着裙 (其五)

신원적모인영가

新圓寂某人靈駕

사대성시 저일점영 명불수성 사대피시 저일점영 명불  
四大成時 這一點靈明不隨成 四大壞時 這一點靈明不

수괴 생사성괴 등공화 원친속업 금하재 금그부재 덕무종 탄연 무애약 허공

隨壞 生死成壞等空花 宛親宿業今何在 今既不在覓無蹤 坦然無碍若虛空

모령 찰찰진진개모체 두두물물총가용 금차착구 정호근문 참외창업

某靈 刹刹塵塵皆妙體 頭頭物物總家翁 今茲着裙 淨護根門 慚愧莊嚴

초중보리 여득인인달근본 육진원아일령광

超證菩提 若得因言達根本 六塵元我一靈光

착의 (귀육)

着衣 (其六)

신원적모인영가

新圓寂某人靈駕

내시시하물 거시시하물 내시거시본무일물 욕착명명  
來時是何物 去時是何物 來時去時本無一物 欲識明明

진주처 청천백운만리통 금자착의 엄비형에 여래유인 시아원상 아사득  
眞住處 靑天白雲萬里通 今茲着衣 掩庇形穢 如來柔忍 是我元常 我師得  
견연등불 다검징위 인옥선  
見燃燈佛 多劫曾爲 忍辱仙

착 판 (고칠)

着 冠 (其七)

신원적모인영가 견문여환예 삼계약공화 문복예근제 전소각원정 정극  
新圓寂某人靈駕 見聞如幻翳 三界若空華 聞復翳根除 塵消覺圓淨 淨極  
광통달 적조함허공 각내판세간 유여몽중사 금자착판 최상정문 수릉엄  
光通達 寂照含虛空 却來觀世間 猶如夢中事 今茲着冠 最上頂門 首楞嚴  
삼매천성공유 인지법행심불퇴 종등등묘야무의  
三昧千聖共由 因地法行心不退 終登等妙也無疑

정 좌 (고팔)

正 坐 (其八) (臥歛에는正臥라唱함)

신원적모인영가 영광독로형탈근진 체로진상 불구문자 진성무염 본  
新圓寂某人靈駕 靈光獨露 迥脫根塵 體露眞常 不拘文字 眞性無染 本

자원성 단의 망연 즉 여여불 금자정좌 시의법공 제불보살 이의글과도  
 自圓成 但離妄緣 卽如々佛 今茲正坐 是爲法空 諸佛菩薩 以爲窟宅 妙  
 보의좌승장엄 제불좌이성정각 여금정좌역여시 차타일시성불도  
 菩提座勝莊嚴 諸佛坐已 成正覺 汝今正坐亦如是 自他一時成佛道

안좌계

安坐偈

만점청산의범찰 일간홍일조령대

萬點青山圍梵刹 一空紅日照靈臺

원각도장단좌처 진심불매향련대

圓覺妙場端坐處 真心不昧向蓮胎

시식문

施食文

신원적모인영가 아차일편향 생종일편심 원차향연하 훈발본진명 절이

新圓寂某人靈駕 我此一片杏 生從一片心 願此杏烟下 熏發本眞明 切以

생사교사 한서질천 괴래야 전격장공 괴거야 과징대해 모령 생연이진

生死交謝 冥署迭遷 其來也 電擊長空 其去也 波澄大海 某靈 生緣已盡

대명아천 으세행지무상 내적멸이위락 공의대중 숙예전진 송제성지흥  
 大命俄遷 了諸行之無常 乃寂滅而為樂 恭依大衆 肅詣前進 誦諸聖之洪  
 명 천청호어정토 앙빙대중 창화십념 청정법신미로 차나불 원만보신노  
 名 薦清魂於淨土 仰憑大衆 唱和十念 清淨法身毘盧遮那佛 圓滿報身盧  
 사나불 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 구품도사아미타불 당과하생미륵존불시  
 舍那佛 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 九品導師阿彌陀佛 當來下生彌勒尊佛 十  
 방삼세일체제불 시방삼세일체존법 대성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  
 方三世一切諸佛 十方三世一切尊法 大聖文殊師利菩薩 大行普賢菩薩 大  
 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지장보살 제존보살마하살 마하만야바라미(차진반상)  
 悲觀世音菩薩 大願本尊地藏菩薩 諸尊菩薩摩訶薩 摩訶般若波羅密(次進蔽末)  
 아차인발반 불하향적찬 원차일미훈 선열포후후  
 我此一鉢飯 不下香積饌 願此一味熏 禪悅飽饜々

다 계

茶 偈

조주칭다진평좌 으르충정일편심

趙卅清茶進靈座 聊表冲情一片心

부음각지삼계몽 안심직도범왕성  
俯飲覺知三界夢安心直到法王城

보공양진언

普供養真言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와흠

唵 我々那 三婆婆 縛阿羅吽 (차심경급소재주)

표백

表白

황매산하 친전불조지심등 임제문중영작인천지안목 불망본서 속환사바

黃梅山下 親傳佛祖之心燈 臨濟門中永作人天之眼目 不忘本普速還娑婆

재명대사 보리군생 상엄변지 염시방삼세일체제불 제존보살마하살마

再明大事 普利群生 莊嚴遍智 念十方三世一切諸佛 諸尊菩薩摩訶薩摩

하반야바라밀

訶般若波羅密 (비승려축표백문성략)

제문

祭文

유세차 모년월일 모등근이향다지전 감소효우선령지하 장엄현궁 영적  
 維歲次某年月日 某等謹以香茶之奠 敢昭告于先靈之下 將掩玄宮 永隔  
 자음 의결종천지한 감구왕생지의 시봉무유 진용여작 금직천지대기  
 茲蔭 既結終天之恨 堪求往生之期 待奉無由 眞容如昨 今則遷止迨期  
 용위수로 호모당극 은심약봉 천천회반 이소즉사 복유상향  
 容衛首露 號慕罔極 傾心若朋 薦獻蘋蘩 以訖卽事 伏惟尚饗

입 감 (귀구)  
 入 龕 (其九)

대중차도 교불야이마거 금불야이마거 모령가 야이마거 하물불감피시  
 大衆且道 古佛也伊麼去 今佛也伊麼去 某靈駕也伊麼去 何物不敢壞是  
 수장견교 제이환자다 모령 여삼세제불일시성도 공심류군생동일열반  
 誰長堅固 諸人還知麼 某靈與三世諸佛一時成道 共十類群生同日涅槃  
 고희미연유안 석인제하루 무언동차암차하  
 其或未然有眼 石人齊下淚 無言童子暗嗟噓

입감필 성북제문  
 (入龕畢) 成服祭文



유제차모년월일 친족모등 근이 다과지천감소고우 선령지하 순적체자  
 雜歲次某年月日 親族某等 謹以茶果之奠敢昭告于 先靈之下 順寂速茲  
 감실사엄 호모망구 신심은련 근이박전고현 복유상향  
 龕室斯掩 號慕罔極 身心隕裂 謹以薄奠告獻 伏惟尚饗

기 감 (괴심)  
 起 龕 (其十)

모각현전 선열위식 남북동서 수처과활 수연여시감문과중 열반고  
 妙覺現前 禪悅爲食 南北東西 隨處快活 雖然如是敢問大衆 某靈 涅槃路  
 두재삼마처 처처득양감제마 가가문의통장안  
 頭 在甚麼處 處々緣揚堪繫馬 家々門外通長安

반흔착어

返魂着語

영명성각모간사 월라추담계영한  
 靈明性覺妙難思 月墮秋潭桂影寒  
 금력수성개각로 짐사진계하향단  
 金鐸數聲開覺路 暫弄眞界下香壇

발인시 의의 차례 열림어 산창 영추계  
發勤時 威儀次第列立魚山唱靈鷲偈

영추염화시상기 궁동부목점명구

靈鷲拈花示上機 肯同浮木接盲龜

음광불시미미소 무한침풍부여수

飲光不是微々笑 無限清風付與誰

자귀의불 자귀의법 자귀의승

自歸依佛 自歸依法 自歸依僧

차어산창십이불 법사현무상계 오방법사각설의방번삼번 인도창공덕계  
次魯山唱十二佛 法師說無常偈 五方法師各說其方幡三遍 引導唱功德偈

정중 순회삼잡 (차법주친령운) 오방법사각설의방번삼번

庭中 順回三匝 (次法主振鈴云)

영사자바 왕생서방 친견미타 시위극락

永辭娑婆 往生西方 親見彌陀 是為極樂

보례 보례시방상주불 법승

普禮 普禮十方常住佛法僧

집명정일배하직명금일종인도창하계  
執名旌一拜下直鳴金一宗引導唱下偈

성현행보진허공 이탈색진도정방

聖賢行步振虛空 已脫色身到淨邦

여금망자역여시 불수오음향곽방

如今亡者亦如是 不受五陰向樂方

산화락 나무영산회상불보살 나무대성인으로왕보살

散花落 南無靈山會上佛菩薩 南無大聖引路王菩薩

(과삼설) (인성요잡지발인처투제문)  
(各三說) (引聲繞匝至苑鞞處說祭文)

유세차모년월일

雜歲次某年月日

선령 금당중천지변

先靈 今當終天之變

앙친고지 자회망망

仰天扣地 自懷茫茫

(哭이재배후일인이과성창)  
(哭而再拜後一人以大聲唱)

친족모등

親族某等

호란자음지격 오호애재

浩嘆慈音之隔 嗚呼哀哉

은장정찬 응도진정

用喪正饌 用表眞情

복유상향

근이다과진수지전

謹以茶果珍羞之奠

오호애재 시봉무유

嗚呼哀哉 侍奉無由

진용적막

眞容寂寞

친족모등

哀乎

모인성전

哀乎

해호

哀乎

친족모등

哀乎

친족모등

哀乎

친족모등

哀乎

친족모등

哀乎

서방대교주 나무아미타불

西方大教主 南無阿彌陀佛

중인일시창화서서이행  
(衆人一時唱和徐々而行)

노제문

路祭文

유제차모년월일

친족모등

근이향다지전 감소고우선령지하 오호영변

維歲次某年月日

親族某等

謹以香茶之奠 敢昭告于先靈之下 嗚呼靈爽

여작엄금모일

음응동격하래추모

앙천고지 익자망망 오장박전 응소진

如昨奄及某日

音容洞隔何迨追慕

仰天扣地 益自茫茫 聊將薄奠 用訢眞

령 복유상향

靈 伏惟尙饗

재담상여지사유소  
再擔喪輿至闕維所

모령

색신수멸

법신상주

심제담연

시명대흘지

지욕식진주

처친판리

某靈 色身雖滅

法身常住

心體湛然

是名大歇之地

欲識眞住處

乾坤萬里

통 모령 성본광대승허공 진성탁연 초법계 약유업장 선당참회  
通 某靈 性本廣大勝虛空 眞性卓然 超法界 某靈 若有業障 先當懺悔

하유진언 근당선렴 다나타 음 아리다라사바하 (세번)

下有直言 謹當宣念 多也陀 唵 阿里多羅娑婆訶 (三說)

~차미타단작법 소과준비밀 법자음과중 진소대삼참 다비법사진령운  
~次彌陀壇作法 燒臺準備畢 法師及大衆 進燒臺三匝 茶毗法師振鈴云

거 화 (의십일)

拳火 (其十一)

차일거화 비삼독지화 시여과인등삼매지화 괴광희희 변조삼제 괴림황

此一炬火 非三毒之火 是如來一燈 三昧之火 其光赫々 遍照三際 其燄煌

煌 통철시방 득괴광야 등제불어연 조실괴광야 순생사지만접 모령 회

煌 洞徹十方 得其光也 等諸佛於一朝 失其光也 順生死之萬劫 某靈 迴

광반조 돈오무생 이열노고 득쌍림락

光返照 頓悟無生 離熱惱苦 得雙林樂

하 화 (의십이) 正五九月 西先火 二六十月 北先火 (但構造火)

下火 (其十二) 三七至月 東先火 四八臘月 南先火 (葬場無用)

삼연화합 잠시성유 사대이산 홀득환공 기년유어환해 금조팔각 경쾌여

三緣和合 暫時成有 四大離散 忽得還空 幾年遊於幻海 今朝脫却慶快如

몽 대중차도 향심마처져 목마도기번일전 대홍염리방한풍

蓬 大象且道 某靈 向其麼處去 木馬倒騎翻一轉 大紅焰裡放寒風

봉 송 (기십삼)

奉送 (其十三)

절이 신원적모령 고수연이순적 배의법이다비 분백년환몽지신 입일토

切以 新圓寂某靈 既隨緣而順寂 乃依法而茶毗 焚百年幻夢之身 入一路

열반지문 양빙대중 차조각로

涅槃之門 仰憑大象 資助覺路

차십념 표백문

次十念 表白文

상래칭양성호 차천왕성 유원혜감분명 진풍산채 보리원리 개부각의지화

上來稱揚聖號 資薦往生 惟願慧鑑分明 眞風散彩 菩提園裡 闕敷覺意之花

법성해중 광척신심지구 고어은정 화남성중

法性海中 蕩滌身心之垢 高馭雲程 扣南聖象

대종급법사 염불독경송주급다라니 이대진소산키시 오방번등투화소키  
 大衆及法師 念佛誦經誦呪及陀羅尼 以待盡燒散故時 五方幡等投火燒之  
 환사  
 還寺

창 의 (귀십사)

唱 衣 (其十四)

인차향연강연석 증명창의견문지 범신본래환청성 단죄번노증보리 부운  
 因此香烟降筵席 證明唱衣見聞知 法身本來還清淨 斷除煩惱證菩提 浮雲  
 간이영불유 잔축진이과외멸 금자유창 응포무상양빙과중 염십념 상래  
 散而影不留 殘燭盡而光自滅 今茲佑唱 用表無常仰憑大衆 念十念 上來  
 창 의 염송공덕 봉위영가 형탈근진 초출삼계 벽담천성지정로 유희일승  
 唱衣 念誦功德 奉為靈駕 迥脫根塵 超出三界 慕踏十聖之正路 遊戲一乘  
 지묘장 해천명월 초성처 암수제원정흔시  
 之妙場 海天明月初生處 巖岫啼猿正歇時

기 골 (귀십오)  
 起 骨 (其十五)

일심영명 一心靈明 二無所得 一擲翻身 多少自在 無相無空無不空 即是如來真寔相

一點靈明 了無所得 一擲翻身 多少自在 無相無空無不空 即是如來真寔相

拾骨 (其十六)

拾骨 (其十六)

취부득 사부득 정당이라시 여하의심 則起眉毛火裡看分明 一掬黃金

取不得 捨不得 正當伊麼時 如何委悉 則起眉毛火裡看分明 一掬黃金

骨 骨

碎骨 (其十七)

碎骨 (其十七)

약인투득삼두관 시각산하대지관 불락인 간분별계 하구누수여청산 저개

若人透得上頭關 始覺山河大地寬 不落人間分別界 何拘綠水與青山 這箇

뼈골 피야미 피야 피직유여벽공 미피직청천백운 영식득로 유재부재 환

白骨壞也未壞也 壞則猶如碧空 未壞則青天白雲 靈識獨露有在不在 還

식저개마 불리당처상담연 먹직지근불가견

識這箇麼 不離當處常湛然 覓則知君不可見



산골과십팔

散骨 (其十八)

회비대야 골절하안 벽지일성 시도외관 틀 일천영명 비내외 오대공외  
反環大野 骨節何安 葛地一聲 始到空閑 焉 一點靈明 非內外 五臺空鎖

백운간

白雲間

환키본토진언 음바하구 사다모

還歸本土真言 唵婆左那 婆多謨

산좌송

散座頌

법신변만백억제 보방금색조인천

法身遍滿百億界 普放金色照人天

응물현형담저월 체원정좌보련대

應物現形潭底月 體圓正座寶蓮臺

십이불

○十二佛

나무서방극락세계 대자대미아미타불 유원금대보좌

南無西方極樂世界 大慈大悲阿彌陀佛 唯願金臺寶座

승공이래 접인차신 왕생정토 (중화) 귀명아미타불

乘空而來 接引此身 往生淨土 (象知) 歸命阿彌陀佛

나무서방극락세계 대자대미아미타불 유원변수불호

南無西方極樂世界 大慈大悲阿彌陀佛 唯願便隨佛號

탈차계신 신수봉행 안락국토 귀명아미타불

脫此界身 信受奉行 安樂國土 (象知) 歸命阿彌陀佛

나무서방극락세계 대자대미아미타불 유원관음세지

南無西方極樂世界 大慈大悲阿彌陀佛 唯願觀音勢至

인도이행 수상선인 유력불국 귀명아미타불

引導而行 隨上善人 遊歷佛國 (象知) 歸命阿彌陀佛

나무서방극락세계 대자대미아미타불 유원정행보지

南無西方極樂世界 大慈大悲阿彌陀佛 唯願經行實地

유희원림 대오삼공 불문팔고 귀명아미타불

遊戲園林 大悟三空 不聞八苦 (象知) 歸命阿彌陀佛

나 무서방극락세계    대자대비아미타불    유원아유원지  
南無西方極樂世界    大慈大悲阿彌陀佛    唯願阿唯越智

시불퇴심    증괴무생    달무생인    귀명아미타불  
是不退心    證彼無生    達無生忍    歸命阿彌陀佛

나 무서방극락세계    대자대비아미타불    유원금사형수  
南無西方極樂世界    大慈大悲阿彌陀佛    唯願金沙瑩水

보수부공    오사총지    득육바라밀    귀명아미타불  
寶樹浮空    悟四總持    得六波羅密    歸命阿彌陀佛

나 무서방극락세계    대자대비아미타불    유원우무량수  
南無西方極樂世界    大慈大悲阿彌陀佛    唯願遇無量壽

득무량광    자재우유    광상제등    귀명아미타불  
得無量光    自在優遊    光相齊等    歸命阿彌陀佛

나 무서방극락세계    대자대비아미타불    유원친근지자  
南無西方極樂世界    大慈大悲阿彌陀佛    唯願親近智者

동상선인    득우여래    변문수기    귀명아미타불  
同上善人    得遇如來    便聞授記    歸命阿彌陀佛

나 무서 방극락세계 대자대비아미타불 유원득부동지  
南無西方極樂世界 大慈大悲阿彌陀佛 唯願得不動智

성자재신 오분향연 육도원만 귀명아미타불  
成自在身 五分香爇 六度圓滿 (衆和) 歸命阿彌陀佛

나 무서 방극락세계 대자대비아미타불 유원환동제불  
南無西方極樂世界 大慈大悲阿彌陀佛 唯願還同諸佛

대화인천 이청정신 연정묘법 귀명아미타불  
大化入天 以清淨身 願淨妙法 (衆和) 歸命阿彌陀佛

나 무서 방극락세계 대자대비판세음보살  
南無西方極樂世界 大慈大悲觀世音菩薩

나 무서 방극락세계 대희대사대세지보살  
南無西方極樂世界 大喜大捨大勢至菩薩

유원관 음세지 대원유형 지수화대 영성정토  
唯願觀 音勢至 大願流行 指授花臺 令生淨土

귀명관 음세지향대보살  
歸命觀音勢至而大菩薩

(衆和)

오 방 번  
○ 五 方 幡

나 무 동 방 만 월 세 계

약 사 유 리 광 불

유 원 대 자 접 인

신 원 적 모 령

청 유

南 無 東 方 滿 月 世 界

藥 師 琉 璃 光 佛

唯 願 大 慈 接 引

新 圓 寂 某 靈

靑 琉

리 세 계 중

중 화

귀 명 약 사 존 불

청 번

璃 世 界 中 (衆 和)

歸 命 藥 師 尊 佛

(靑 幡)

나 무 남 방 환 희 세 계

보 승 여 과 불

유 원 대 자 접 인

신 원 적 모 령

적 유 리

南 無 南 方 歡 喜 世 界

寶 勝 如 來 佛

唯 願 大 慈 接 引

新 圓 寂 某 靈

赤 琉 璃

세 계 중

(중 화)

귀 명 보 승 여 과 불

(적 번)

世 界 中 (衆 和)

歸 命 寶 勝 如 來 佛

(赤 幡)

나 무 서 방 즉 락 세 계 이 미 타 불 유 원 대 자 접 인

신 원 적 모 령

백 유 리 세 계 중

南 無 西 方 極 樂 世 界 阿 彌 陀 佛 唯 願 大 慈 接 引

新 圓 寂 某 靈

白 琉 璃 世 界 中

귀 명 아 미 타 불

(백 번)

歸 命 阿 彌 陀 佛

(白 幡)

나 무 북 방 무 우 세 계 부 동 존 불

유 원 대 자 접 인

신 원 적 모 령

후 유 리 세 계

南 無 北 方 無 憂 世 界 不 動 尊 佛

唯 願 大 慈 接 引

新 圓 寂 某 靈

黑 琉 璃 世 界

중 (중화)  
中 (象和)

귀명부동존불  
歸命不動尊佛

흑번  
(黑幡)

나무중방화장세계비로자나불

유원대자접인

南無中方萃藏世界毘盧遮那佛

唯願大慈接引

신원적모령  
新圓寂某靈

황유리세계중

(중화)

귀명비로자나불

(황번)

黃琉璃世界中

(象和)

歸命毘盧遮那佛

(黃幡)

○ 매장식  
埋葬式

매장식 자삭발편지기 감편여상거행 자거화편외산골편생략차득하관  
埋葬時 自削髮篇至起龕篇如常奉行 自拳火篇至散骨篇省畧次讀下棺

편여하  
篇如下

하 관  
下 棺

신원적모령  
新圓寂某靈

일체제중생 신심개여환 신상속사대 심성키육진 사대체각  
一切諸衆生 身心皆如幻 身相屬四大 心性歸六塵 四大體各

리 수위 화합자

離誰為和合者

대중차도  
大衆直道

금일영가 향심마처거 일체불세계 유여허공  
今日靈駕 向甚麼處去 一切佛世界 猶如虛空

화 삼세살평등 필경무래거

모령  
환회득 차령 등 무래 거 처 일 구 마 기 후 미

華三世悉平等 畢竟無來去

某靈 還會得 此平等無來去 底一句麼 既或未

연 경청 주각 기사 인간 백세 환신 업키지하 영년 유래 체 백안영 장보자

然 更聽註脚 既捨人間 百歲幻身 奄歸地下 永年幽宅 體魄安寧 長保子

손 혼키안양 지재우유

孫 魂歸安養 自在優遊

환키본도진어

법신변만백억계

還歸本土真言

운운  
云々

法身遍滿百億界

운운  
云々

부릉 등신 소재 방 춘재 신유간 하재 해자간 추재 인묘간 동재 사오간

附崩騰神所在方 春在申酉向 夏在亥子向 秋在寅卯向 冬在巳午向

